

2018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가 주관하는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가 지난 3월 31일 (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보스턴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스테타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기술의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는 이제 원로가 된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였던 강기동 박사 (공대 53)와 떠오르는 신기술인 블록체인 전문가 김진화 코빗 창업자를 연사로 하여 과거의 신기술의 탄생 과정과 새로운 기술의 펼침을 한 자리에서 듣는 시간이었다.

강기동 박사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네바다주 리노에서 보스턴까지 와 동창회의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김병국 동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 공대 71)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윤상래 미주동창회장의 인사,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의 축사, 그리고 강기동 박사와 김진화 연사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강연자인 강기동 박사는 삼성반도체의 전신인 한국반도체를 설립해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전수한 개척자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 온 후 조용히 숨어 지내며 살았다고 말했다. 반도체 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는 자신이 이력서를 내는 경우 반도체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반도체 기술은 미군사 기밀과 관련이 있어서 두려웠었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오늘날 한국성장에 기여한 것에 비해 한국의 반도체 발전사에서 그의 이름

이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강 박사는 자신이 모토로라 선임연구원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마추어무선핸드북을 4년동안 읽고,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라며 자신이 좋아서 했던 일이 결국 대학에서 그리고 향후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회보 2018/2월 호 P16-18 참조)

두번째 강연자인 김진화 대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한 강연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 대표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자 수는 2017년초 10만 명였으나 2017년 말에 300만 명 지금은 한 때 최고 500만 명에 달했다. 거래금액도 200억에서 10조로 많아졌다"고 말하고,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어떻게 사회화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기술의 범위를 암호화폐로 좁혀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이전의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었지만 블록체인 이후의 인터넷은 인터넷에 가치 개념이 탑재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는 투기판이며 버블"이라고 지적했다. 이 버블이 어떻게 꺼지게 될지는 향후 금융시장과 어떤 접점을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P18 참조)

주제 발표가 끝난후 참석자들과 발표자들

제27차 평의원 회의에 초대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금) ~ 17일 (일)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님: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27차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스턴(Crowne Plaza Boston-Natick)에서 열립니다. 이메일이나 회보의 홍보를 통해서 이미 통보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금년의 평의원 회의는 15일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강연은 이채진(문리대 55) 교수님의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입니다. 이채진 교수님은 한반도 연구를 평생 하시었으며, 이를 정리하셔서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현 대한민국 국방부 서기관 김경욱(사회대 지리학과) 동문으로 '북핵의 위협과 한미동맹 방어 체제'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의 통일과 한반도의 장래를 논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의 1년간 활동과 재정 보고를 들으시는 귀중한 시간이며, 지난해 여러분께서 설립한 "SNUAUSA Century FOUNDATION"을 계속 토의하게 됩니다.

16일 토요일 저녁에 갖게 되는 평의원 환영 만찬에서는 주중광(약대 60)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고 곧이어서 평의원 회의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서울 음대 대학원 국악팀의 연주를 감상하시게 됩니다.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백년대계를 의논하시고 전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동문과 돈독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윤상래 드림

>> 13면 안내 참조

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한 기술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공식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회의장 밖에 마련된 한식 부페를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화창한 봄 날씨에 모처럼 좋은 이야기를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주최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는 이전까지 미

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맞춰 개최해 오던 것을 별도 세션으로 독립시켜 행사를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상래 회장이 6,000불 이상을 기부하였으며, 김은한, 정정욱, 고일석, 이재신, 주중광/허지영, 김문소/김계숙, 이병준, 지홍민, 박영철/정신주, 이만택, 김용현, 박종수, 임종식, 노명호, 박희진, 이경림, 전상욱, 정동규, 이진구, 오인환, 손재욱, 신용남/이희만 동문 등 많은 동문이 후원했다. [사진: 황보민영(자연 02)]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윤영관 (외교 71)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길

과연 열릴 것인가

한반도에서 중대한 정치적 격변이 시작되고 있다. 대북특사의 귀환 후 발표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 4월 남 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발표 등 하나하나가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힘든 놀라운 뉴스들이었다. 이러한 흐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지난 20여 년의 고민거리였던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정착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가능성이 30퍼센트다, 50퍼센트 다라고 거론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의 이 상황은 전례 없이 놀랍다. 첫째, 2011년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가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핵 프로그램 포기 후에 몰락한 것을 보았기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면서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핵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상당히 변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둘째,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연결시키려는 비핵화 외교 노력이 성공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핵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국제정치 현실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면서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특사단의 브리핑을 받는 그 자리에서 “5월 안으로 만나겠다”고 결정해버렸다. 만일 발표대로 된다면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그 경우, 단순히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대결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

이다. 국내정치적 논란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북한당국에 보낸 신뢰감의 기반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 돌파의지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본다.

“남북, 북미 간 정상외교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철저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첫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조건으로 붙인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될 것이고 어떻게 북의 비핵화 과정과 상호

연계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과연 이러한 외교적 노력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이다. 즉 그가 핵을 더 이상 체제보장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 안보외교-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협상 카드로 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전략적 결단이 된다. 그러나 내심 핵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하면서 제재나 군사훈련을 약화시키고 시간벌기 수단으로 협상장에 나온다면 그것은 전술적인 조정이고 술책이 된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전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첫째는 북한이 역사상 최초로 국제적 경제제재의 타격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되면 엘리트 및 민심의 동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둘째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최근에 군사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집중 배치하고 코퍼전략 등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전술적 조정만으로는 힘들고 핵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 설을 수 있다. 동시에 이미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만큼 자신도 상당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했기에 받아낼 것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보장 문제는 이른바 북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해소,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문제와 관련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처럼 커뮤니케 형식으로 상호 적대시정책의 종결을 선언할지, 아니면 다른 문서상의 협정, 예를 들어 평화협정을 서두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문서상의 조치 이전이라도 먼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할 것이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완성된 후에 체결할 것인가, 비핵화 추진과 동시에 진행할 것인가의 시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남북미 3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더 나아가 일러 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등의 참가범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해소하게 되면 주한미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다. 과연 이 주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반박할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울 언초부터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나 통 큰 협상스타일을 볼 때, 615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처럼 ‘주한미군은 철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북특사와 미측에 전달한 ‘한 미군사훈련의 지속은 우리도 이해한다’라는 그의 언급도 그런 방향으로의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북한은 아마도 여기에 추가하여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모든 대북지원을 철저히 연동시켜 북한이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 조치들을 이행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정상회담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이행할 미국 측 실무협상팀이 거의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철저히 로드맵을 준비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비핵화와 평화구축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바란다.

모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최인철 (사회대)

극한상황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동력은 ‘의미 찾기’

개인들이 삶의 의미 좇을수록 집단적 의리사회에는 균형

‘가신’, ‘최측근’, ‘집사의 증언’ 혹은 배신으로 불변과 편비의 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로선 알 길이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일들은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한다.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반박하고, 본신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을까? ‘제 한 몸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일까, 아니면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용인술의 실패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의리’에 대한 ‘의미’의 승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의리와 의미는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개의 큰 힘이다. 의리는 집단과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지탱해온 큰 기둥이었다. 연구주의라는 극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리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하는 힘을 발휘해왔다. 의리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낙인인지를 우리는 뱃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리가 지배하던 삶을 살아왔다. 불의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미화되어왔다. 그럴수록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개인의 위대한 본성은 약화하고, 우리의 내적 고통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똑똑하게 증언하듯이,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의리가 아니라 의미이다.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터넷 때마다 자식들을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의지의 표출이다. 자녀에게 부모란, 어떤 편법과 불의를 써서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원치 않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절실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부모가 나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새로운 의미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임을 깨달은 것이다.

의리는 의미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은 의미에의 의지가 충만한 존재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다. 삶에 대한 희망이 라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한 결정적 힘은 다른 아닌 ‘삶의 의미’였다.

의미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발견되는 것이 의미이다. 의미는 즐거움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약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삶의 다양한 굴곡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의미는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불의가 다 드러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의리 때문에 침묵하고 방조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등에 업고 마침내 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가 한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그는 참가자들에게 알파벳이 가득한 종이에서 특정 알파벳을 찾아 체크하는 과제를 주었다. 마친 종이를 제출하면 다시 다른 종이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완수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조건에서는 종이에 참가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했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이름을 적게 하지 않고, 종이를 제출하자마자 파쇄기에 종이를 넣어버렸다. 참가자들은 원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다. 과연 참가자들은 어느 조건에서 더 많은 과제를 수행했을까?

돈의 관점에서 보자면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적당히 하고 제출해도 들킬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한 조건에서 더 많은 과제를 해냈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비록 대중대중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 조건의 참가자들은 부서지는 종이를 보면서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는 상황에서 의미를 지키는 행위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의미 없는 불의를 외치며 도구를 믿고 저지른다면, 큰 실수이다. 보이지 않는 의미가 보이는 의리를 이긴다. 인간의 위대함은 불의를 의리로 둔갑시키는 데 있지 않고, 비록 늦었을망정 의미가 결여된 의리를 깨는 데 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트럼프 관세정책의 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근래 무역정책의 하나로 수입 관세, 특히 철강 수입에 25%의 관세와 알루미늄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트럼프의 철강 수입과 알루미늄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은 미국의 전체 철강 수요의 3분의 1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90% 이상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일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당연한 무역정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인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관찰하기로 한다. 4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관점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관점이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거의 3%에 달하는 5천 6백 6십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들은 자신이 완수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조건에서는 종이에 참가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했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이름을 적게 하지 않고, 종이를 제출하자마자 파쇄기에 종이를 넣어버렸다. 참가자들은 원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다. 과연 참가자들은 어느 조건에서 더 많은 과제를 수행했을까?

둘째 관점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모든 현대산업의 철거리는 아니 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의 거시경제나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요청되는 경제정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지난 주 관세부과의 발표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의 주가가 폭등한 것은 관세의 부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들의 수익이 늘게 되고 산업의 확장과 고용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인플레이션과 소비의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정책이 그가 제창하는 미국 제일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무역적자의 축소,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육성,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승리, 미국의 교역협상 수단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정치계에 적지 않게 들려 옴을 무시할 수 없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더구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나 그에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1. 2018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2. 기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길, 과연 열릴 것인가, 윤영관
3. 기고: 의리는 의미를 이길 수 없다, 최인철 / 트럼프 관세정책의 의미, 백순
4. 기고: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행정 능력 이항렬
5. 기고: 여자라서 배려한다?, 김영희 / 21세기 한국에서 서울대생이 되려면, 조수남
6. 기고: 낙관적인 미국 경제와 인공지능(AI), 김장수 / ‘시 황제’의 정치적 리스크 대비해야, 전정환
7. 모교 자문회의 결 여기사 모임
8. 지부 소식: 남가주 지부 동창회 / 미네소타 동창회
9. 지부 소식: 뉴욕 지부 동창회 / 시카고 지부 동창회
10. 기고: 한국교육의 처녀지, 미국에서 교육실험을 하다 허병렬
11. 동문동창: 최용완(공대 57)동문 인문학 강좌 / 이미화(미대 77) 동문 개인전
12. 기고: ‘우주 보살’을 기다리며, 김지영 / 치매, 길이 있다, 이월영
13.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14. 기고: 겸재 정선의 금강산 그림 앞에서, 최일단
15. 나의 베르, 이모가 그라운 날, 한정민
16. 미국국의 나의 발자취: 이순신 승모가 이내원(사대 58) 동문

17. 기고: 농자천하지대본, 박평일
18. 기고: 비트코인은 꺼지지 않는 ‘버블’이다, 김진화
19. 기고: 강기동 박사과 한국 반도체, 그리고 대한민국 이정수 / 빙하수(氷河水)를 마시면서 서윤석
20. 역사에서 유명한 돈 이야기 최은관
21. 과테말라 선교의 접목된 새마을 운동 김현영
22. B형 간염과 간암의 퇴치운동 그 첫 50년 동안의 실적 한수웅
23. B형 간염과 간암의 퇴치운동 그 첫 50년 동안의 실적 한수웅
24. 광고
25. 후원금 집계
26. 동창회비 집계
27. 동창회비 집계
28. 미주 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32. 광고



이향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행정 능력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였다. 첫째, 국군 통수권 (Commander in Chief), 둘째, 외교의 수반(Diplomat in Chief), 셋째, 행정의 총책임자(Administrator in Chief)로서 미국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자로 거의 1세기 동안 세계 정치, 경제, 외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불행하게도 현재 45대 대통령 트럼프는 이 세 가지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마도 후세에 출렁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 같다.

첫째, 행정 면에 있어서 백악관 내의 행정도 견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쌓여 있으며 거의 50%의 중요 책임자들이 해고와 사퇴를 하였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백악관의 안보위원장(National Security Advisor)의 직책은 중요한데 1년 동안 벌써 두 번째의 안보위원장이 해임되었으며, 두 번째의 총비서실장(Chief of Staff) 켈리 (Kelly, 전 3성 장군)도 곧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장성 출신인 켈리 총비서실장이나 맥마스터(McMaster) 안보수석은 대통령에게 올바른 충고를 계속하고 대통령에게 아침을 잘 하지 못한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 못 한 것 같다. 새로 임명된 안보수석은 전 UN 대사를 하였던 볼튼(John Bolton)으로서 그는 극우의 이념 자이며 북한을 수소폭탄으로 공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장본인이다. 5월에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다. 북한 정권을 섬멸하는 것은 좋지만 김정은이 사담후세인(Saddam Hussein)이나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Gaddafi)같이 당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김정은은 핵폭탄을 남한에 사용할 것이며 15,000여 개의 장거리 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여하튼 2백여 만의 연방 공무원들을 다스려

야 하는 대통령이 400여 명의 백악관 직원들도 통수 못 하니 참 딱한 노릇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렸던 비밀회의와 비밀협정들이 외부에 누설되고 가짜 신문(?) New York Times와 허위선전신문(?) Washington Post가 보도한다고 노발대발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백악관의 행정 질서가 안 잡히고 누설자들은 국가장래가 걱정되어 누설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였던 Washington,



H. R. McMaster



Rex Tillerson



James Comey



Sally Q. Yates

Lincoln, Franklin Roosevelt 경우, 그들은 모두 훌륭한 행정가였으며, 부하들의 충고를 한데 1년 동안 벌써 두 번째의 안보위원장이 해임되었으며, 두 번째의 총비서실장(Chief of Staff) 켈리 (Kelly, 전 3성 장군)도 곧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장성 출신인 켈리 총비서실장이나 맥마스터(McMaster) 안보수석은 대통령에게 올바른 충고를 계속하고 대통령에게 아침을 잘 하지 못한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 못 한 것 같다. 새로 임명된 안보수석은 전 UN 대사를 하였던 볼튼(John Bolton)으로서 그는 극우의 이념 자이며 북한을 수소폭탄으로 공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장본인이다. 5월에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다. 북한 정권을 섬멸하는 것은 좋지만 김정은이 사담후세인(Saddam Hussein)이나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Gaddafi)같이 당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김정은은 핵폭탄을 남한에 사용할 것이며 15,000여 개의 장거리 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둘째, 외교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

도자로서 세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그의 외교적 능력은 무척 중요한 것이며 세계지도자로서 특히 동맹국들의 원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즉흥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한다. 예를 들면 NATO 동맹국들과 일본, 심지어 한국 등도 미국을 이용만 해 먹고 자기들의 경제 이익만 추구하며 손해만 끼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최대강국이지만 NATO 같은 동맹의 도움이 없으면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주의 목표를 견제할 수 없으며,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되면 결국 21세기 후반에 미국의 세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외교 행정에 있어서도 현재 외무성(Department of State)에서 많은 직원 외교관들이 사퇴하였고, 미 국무장관 틸러스(Tillerson)이 해고되었으며, 본인을 직접 해직시킨 것도 아니고, twitter로 퇴직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대사직

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본인 세금 보고서는 세무조사청이 조사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고, 미국연방수사국의 조사와 Muller 특별조사위원회의 트럼프 선거단과 러시아와의 선거결과는 전부 민주당이 허위로 만들어낸 음모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자기 말과 믿음만이 진실이고 다른 견해와 반대 견해는 모두 가짜라는 것이다.

셋째, 아직도 백악관에서는 직원들끼리 권력 다툼에 분망하고 특하면 비밀문서와 비밀 정책 결정이 대중 언론, TV나 신문에 유출되고, 그가 믿는 언론 매체는 Fox News 나 National Enquirer 밖에 없으니 한심한 것보다 미국 장래가 우려된다. 결국, 대통령이 부하로부터 존경심이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언제 퇴직이나 사임 될지 모르고 대통령은 자기 이익과 권력유지에만 치중하니 어떤 부하가 이런 지도자를 받겠고 충성을 바치겠나? 현재 아마 그가 믿을 사람은 본인 딸이나 사위 쿠시너(Kushner) 정도나 있을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외교경험이 전혀 없는 사위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사로 지명했으니 그 결과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아이러니하게 쿠시너는 아직도 보안허가(Security Clearance)를 못 받았으며, 백악관에서 특급비밀문서를 볼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남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최고 협상가(Best Dealer)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관료와 국민들은 대통령의 허위 과장된 행동과 말 때문에 그를 신뢰 못 하고 그의 추종자들까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통치첫해의 국민 여론 지지도가 40% 이하로 내려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백악관 직원 400명 이외에 대통령 직속 사무실(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4,000여 명의 관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군인을 합한 4백여만 명의 관료를 다스릴 수 있을까 매우 걱정된다. 그 이외에 435명의 하원의원, 100명의 상원의원과 잘 교섭하여 미국의 민주체제를 세계의 선망과 모범대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상황은 수십억 조 달러 만큼의 수수께끼다.

전 셰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김영희 (인문 88)

여자라서 배려한다?

“지금 말고 있는 팀은 저녁에 전문가들 모시는 일이 많아요. 상대방은 으레 밤늦게까지 자리가 계속되는 걸로 생각하고 나오니 남자 직원들에게 밤 10시만 되면 여자 직원들은 무조건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검사가 말했다. 늦은 밤길, 택시 태우기도 불안하니 여성들을 배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밤 10시는 ‘초저녁’ 취급하던 내 과거 회식자리를 돌이켜보면 참 좋은 상사구나 싶었다. 검찰처럼 상명하복으로 뚫돌 뚫친 권위적 조직에서도 이러니 세상 정말 변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못내 마음에 걸렸다. “저도 일하는 아내가 늦게 오면 밤늦게까지 아이 준비를 챙기고 그러는 거 보니까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는 평소에도 남성직원들을 더 거칠게 대하는데 혹사까지 시켜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

“...아머니 세대와 달리 고학력세대다. ‘너만 똑똑하고 성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다. 모교 출신 여성동문들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여자들이 바라는 건 여자라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든 모두 밤 10시면 자리를 뜰 수 있는 문화 아닐까요?”라고 말하며 넘어갔지만,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나 같으면 아예 늦게 들어가 그날만이라도 아이 챙기기가 면제되길 바랄 텐데! ‘아내가 올 때까지 왜 남편은 손 놓고 있나!’ 이러니가 부서여 여자가 늘면 남자들 일만 많아진다는 소리가 나오지!’

얼마 전 지난해 함께출산을 1.05명이라는 압도한 수치가 발표됐고, 저출산의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문화가 거론된다. 육아휴직 확대는 물론 시간선택제, 연차사용 활성화 등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모든 게 해결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여성은 75.8%가 남은 시간을 육아에 쓴 반면 남성은 46.5%만이 할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이나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남 녀가 여유시간마저 동등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해외에선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면 출산

율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독 한국에선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82년생 김지영’이라 불리는 30대 여성들의 분노와 절망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우리 사회, 많이 변했다. 집안일을 ‘돕는’ 남성들도 늘었다. 그런데 여성들은 더 많이 변했다. 특히 지금 여성들은 대학진학자가 드물던 어머니 세대와 달리 고학력세대다. ‘너만 똑똑하고 성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다. 모교 출신 여성동문들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한겨레’에 실린 기사에서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걸 엄청 후회하

거든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니까요. 사회적 인식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자만 쓸데없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고통을 겪는구나 싶어요.”

또 다른 30대 여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어 움짱달썩할 수 없어요. 남편은 자기가 직장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가정적인 남자라고 주장해요. 나한테는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죠.”라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은 삶의 질 저하나 청년세대가 희망을 잃은 게 큰 요인이지만, 이런 여성들의 분노와 절망의 반영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 아무리 여성들을 ‘배려’해도 보수적인 성역할 구분이 그대로인 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돈버는 일)과 돌봄(가사나 육아)은 성별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밤 10시면 여자들은 보낸다’는 그 검사의 방침이 ‘선’임을 알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던 이유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수남 (대학원 97)

21세기 한국에서

서울대생이 되려면

필자는 대학에서 학기 말 과제로 학부 학생들에게 꽤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쓰게 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만나서 기말 리포트 주제를 놓고 상담을 해준다. 이때 대부분은 필자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온다. 10년 가까이 기말 리포트를 받아왔으므로 웬만하면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리포트 주제와 겹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 중에는 필자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이들이 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는 어떤 것을 참고할 것인지 등을 물어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독특하게 뛰어난 학생 중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온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우선 이 학생들은 학부 학생들이 전혀 건드리지 않

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 그 학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행 학습에 익숙해 있던 학생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을 떠올리며 쓸쓸한 표정을 떠올리고는 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그래픽 부서에 인턴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부작가팀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참으로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이 학생이 필자 수업에서 쓴 리포트가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우수리포트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초청장을 받고 개학 후 시상식에 참여했다. 학생을 만나 축하하며 방학은 잘 보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인턴 생활은 만족스러웠고 드림웍스 측에서 제안해서 다음 방학에도 드림웍스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크게 칭찬하며 격려했다.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만나서 기말 리포트 주제를 놓고 상담을 해준다. 이때 대부분은 필자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온다. ... 그런데 학생 중에는 필자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이들이 있다.”

을 주제를 과감하게 선택한다. 대부분 학부 학생 수준에서 완성도 있는 논문을 쓰기 힘든 주제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겁 없이 뛰어든다. 물론 대부분은 학기 말이 되면 양해를 구한다. 주제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며, 자료가 부족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이다. 자연히 결과물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준다. 한글 자료만 고집하는 서울대생이 많은 현실에서 이 학생들이 참고하는 해외 자료들은 대개 수준이 매우 높다. 자연히 그 정도의 리포트를 쓰는 데도 상당한 공부 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 번은 그런 학생 중 한 명과 리포트 주제에 대해 상의하면서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리포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서울대 강의와 학생들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 학생이 한 강의를 들었는데,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기 초부터 학생들이 있는 데, 짜서 과제 준비를 하는 게 이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를 짜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기 말 안에 과제를 제대로 끝내기가 힘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려면 거의 완벽한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문과면 사회, 이과면 과학 분야에서 1등급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다 가령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다 해도 너무 과학 공부만 많이 해서 안 된다. 내신 성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내신 1등급을 얻을 수 있는 성적이면 더 이상 영어책이나 신문을 읽는다는 건 하는 과목을 부러서는 안 된다. 혹 이런 식으로 내신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수능 시험 준비에 몰두해야 한다. 기출 문제를 풀고 또 풀어야 한다. 대학 학점 관리도 마찬가지로 일이다. 아무리 흥미 있다 하더라도 한 과목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선 안 될 것이다. 기말 리포트를 쓴다고 할 때는 A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 있는 리포트를 쓰면 될 것이다.

아쉽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고등학교 교육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그런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할까 봐. 그리고 두렵다! 내 아이도 그런 교육에 익숙해질까 봐.

과학사학자모교 강사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김창수 (악대 64)

낙관적인 미국 경제와 인공지능(AI)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올 해 들어서 투자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Berkshire Hathaway 회장)이 미국 경제의 앞날에 아주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 근처 주간지 타임지에는「The Genius of America」라는 제목으로 그의 견해를 두 페이지 반에 걸쳐 게재하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5만 9,000 달러 수준인 미국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25년 후에는 2만 달러나 늘어나 7만 9,000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한 세대 후손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게 된다는 낙관론을 편다.

근래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 2%이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을 0.8%로 보았을 때, 매년 1.2%의 실질 성장률로 25년 후에는 개인 소득이 2만 달러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인구증가율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0.3%이고,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0.5%로, 전체적으로 연 평균 0.8% 증가한다고 보았다.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계속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241년전에 독립했을 당시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지금은 인구의 2%만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덕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1차 산업에서 떠나 2차, 3차, 그리고 4차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의 땅값만 23조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35년 동안 미국의 400대 부호의 총 재산은 930억 달러에서 2조 7,000억 달러로 늘어나 29배나 늘어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소득층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 성장의 과실은 초부유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지난 세대에 미국에 대항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대국은 일본과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오는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미국의 강점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IT와 AI(인공지능) 기술인데, 중국이 미국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

지난 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약자로 CES)는 글러벌 IT(정보 기술) 기업들의 경연장인데, 중국 전자쇼(Chinese Electronics Show)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국의 IT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후발 주자이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전통 산업을 결합하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역점을 두고 있다. 8억의 인터넷 유저가 쏟아내는 데이터 축적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이 빅데이터가 중국의 강점이라고 한다.

AI 자동차, 음성명령으로 작동하는 TV, 전등, 실내 온도 조절기, 샤워기, 지능형 변기 등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시대가 가까워졌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이 차세대 국가 경제 규모와 개인 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 세계적 기업체의 브랜드 가치는 아마존(1,508억 달러), 애플(1,463억 달러), 구글(1,209억 달러), 삼성(923억 달러)의 순으로 되어 있어서, IT와 AE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작년의 미국의 일인당 국민 총생산은 5만 9,594 달러였고, 중국은 8,583 달러였다. (참고로 독일은 4만 4,184 달러, 일본은 3만 8,550 달러, 한국은 2만 9,739 달러였다.) 개인별 소득 수준으로 미국은 중국의 6배 가까이 된다. 두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은 비교도 되지 않는데, 중국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42배가 되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 면에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위에서 워렌 버핏이 피력한대로 낙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크고 기만이 튼튼한 것은 앞서 달리는 미국의 과학기술 이외에도 금융·재정관리의 기술 덕분이다. 20~30여 년 전 미국 뒤를 바짝 쫓아오던 일본이 미국에 넘어진 것은, 일본이 금융과 재정관리면에서 미국에게 당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사실이 언제가는 중국에도 반복될 지 두고 볼 일이다.

CPI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이왕휘 (사회대)

‘시 황제’의 정치적 리스크 대비해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가 지난 5일 개막되었다. 작년 10월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이 당장(黨章)에 삽입되었으며,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 헌법 제79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시 주석은 현 임기인 인터넷 유저가 쏟아내는 데이터 축적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이 빅데이터가 중국의 강점이라고 한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가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다. 강력한 영도자는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사상에 방점이 찍혀있을 경우, 당과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에서 기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시진핑 집권 2기 정책방향은 2015년 시 주석의 처음 언급했던 공급 측 개혁(供給側改革)에 맞춰져 있다. 2018년 성장률 목표를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6.6%보다도 0.1% 낮은 6.5%로 설정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우선하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수출보다 내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국유기업보다 민간기업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시자진(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정부업무보고를 낭독한 리커창 총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7상8하(七上八下)만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퇴임한다) 관례에 따라 퇴임했던 왕 전 서기가 국가 부주석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외관계를 전담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지만, 왕 전 서기가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금융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주임은 국무원 부총리(경제담당)와 인민은행장을 겸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연설, 2월 미국 방문 등으로 볼 때 류 주임은 이미 대외경제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 개혁 강화가 탈규제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보안법 도입 및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VPN) 단속 등 정보통신기술(ITC) 기업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위시한 민간기업이 개발한 생체인식,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임의로 평가한 사회 신용평가기사와 같은 제도가 등장한다면, 개인은 물론 기업에 대한 당과 정부의 통제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국유기업의 민간기업 자본 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도 정부의 시장 개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의 자본 1%를 ‘특별관리주식’으로 확보해 경영진의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기업 내에 당원들이 구성된 ‘당 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려는 조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비국영 기업은 물론 해외자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약 70%에 당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당 위원회가 업무시간에 활동하는 것은 물론 경영이나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중화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리스크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다국적 기업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발언을 인용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스타그램 광고, 고척 설문에 대만과 티베트를 독립 국가로 분류한 메리엇 인터내셔널이 대표적 예이다.

제2의 사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류 마케팅이 중국 소비자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모교 자료회의의 겸 여기자 모임

노정혜 교수 “서울대 여교수 더 많아져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활동소개, 육아휴직 동문 등 40명 참석



지난 2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40여 명의 모교 출신 여성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사랑미디어문화의가 열렸다.

서울대의 다양성 지표

(단위 % 출처 서울대 다양성 보고서)

외국인 전임 교원	5.2
보직교수 중 여성	13.3
내국인 전임 교원 중 타 대학 학부 출신	14.4
전임 교원 중 여성	15.0
학부생 중 여성	40.5
비전임 교원, 연구원 중 여성	57.6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중 여성	74.6

과 미국 주요 대학들의 인종 성별 등 다양성 지표를 조사해 홈페이지에 게재도 한다. 이날 노정혜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대 교원 2,301명 가운데 여자 교

원은 373명으로 약 15%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의 여성 전임 비율은 25%, 하버드대는 29% 수준이다. 전임 교원 중 타 대학 출신 비율은 14.9%다. 노 위원장은 “집단 지성과 연결되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단순히 인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성이 능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노정혜 교수의 다양성위원회 소개 후 이어진 참석 회원들의 자기소개 시간에는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맞물려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여자자들의 고충과 학창시절 여자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화제에 올랐다.

신예리 회장과 국민일보 최민영(인류 85-89) 기자는 입사 초 한 상관이 미스 신, 미스 최로 호명해 이름 석자를 불러 줄 것을 요구했다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았던 기억을 언

급하며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상은 동문은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구나 느끼기도 하면서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자 기자들도 그런 문제를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경은(국문 92-96) 기자는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남자들에게 이상한 취급 받을까봐 육아휴직은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목소리를 내지 못 했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든다”며 “후배 기자들은 정당한 문제라면 목소리를 내서 남자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조언했다.

이날 자기소개의 대미를 장식한 이용식 관악언론인회 회장도 동료 기자였던 부인의 출산 일화를 들려주며 여자자들의 당당한 목소리를 지지했다.

이 회장은 “입사 동기인 아내가 출산 전날까지 출근해 일했고 저는 그날 회식으로 술이 취한 상태로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다 잠들어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다”면서 “서울신문 신동식 선배는 출산 때마다 사표를 내고 재입사를 반복해 세 번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 아내는 큰 아이 고등학교에서 상담 받고 와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이를 너무 방치했다는 자괴감이 컸다. 아내가 그 후 ‘맞벌이 부부 아이는 서울대 못 간다’(이미지 박스)는 책을 쓰기도 했다. 늘 하는 말이 젊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언제든 목소리 내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출처: 동동창회보, 기사: 김남주 기자)

서울대학교

국제하게강좌

서울대학교 국제하게강좌(SNU ISI)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강의를 수강하고 서울대학교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동문자녀들에게는 20%수업료 면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Area	Courses
Korean Studies (3 credits)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 Two Koreas: Modern Korea: History and Society The Modern Korean Cinema: Story Interpersonal Relations & Power: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Life in Contemporary Korea Korean Cinema and Popular Culture U.S. and Asia
International & East Asian Studies (3 credits)	Philosophy of Governance: Philosophy East and We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Money, Politics, and Global Capital East in World Affairs The Multinational Trading System & Trade Integrations in Asia-Pacific Introduction to Global Justice Globalization, War, and the Economy
Korean Language (2 credits)	Korean Language I (1-Hr level)

Area	Courses
Economics & Business (3 credits)	Entrepreneurship in Asia Management Accounting Introduction to Marketing Experience of Strategy Financial Management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Introduction to Macroeconomics
Engineering & Life Sciences (3 credits)	Human Geography of Asia and South Korea in Asia Project Management Engineer and Society Korean Architecture and Urbanism Introduction to Chemistry Introduction to Botany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Music & Fine Arts (2 credit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ulture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1 credit) Korean Art and Cultural Heritage(1 credit) Korean Art and Cultural Heritage(1 credit) Korean Art and Cultural Heritage(1 credit)

원서접수시작

2018년 3월 1일 목요일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http://isi.snu.ac.kr 통해 신청

수업료 및 장학금

60만원/1학점
(장학:서울대학교 동문자녀 20%, 협정대학교 10%, 성적우수 장학금 제공)

문의

82-2-880-4449, summer@snu.ac.kr

2018년 3월 1일	온라인 원서접수 시작
2018년 4월 4일	조기등록(등록비 면제)
2018년 6월 7일	등록마감일
2018년 6월 25일-26	기숙사 입사
2018년 6월 28일	입학식
2018년 6월 27일	개강일
2018년 7월 26일	종강일
2018년 7월 27일	졸업식
2018년 7월 28일	기숙사 퇴사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남가주 지부 동창회

2018년 춘계골프대회

춘분이 지나고 청명이 가까워 오는 따스한 봄날, 3월 마지막 날에 L.A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 지점, Walnut에 위치한 Royal Vista Golf Club에서 100명이 훨씬 넘는 동문과 초대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강신용, 사대 73) 주최로 2018년 춘계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골프장 곳곳에 피어 있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에 넓게 펼쳐진 풀밭의 싱그러움이 더해져서 동문들은 화사한 봄날을 만끽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쳤고, 골프대회가 끝난 후 Royal Vista Club House에서 시상식과 더불어 만찬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강신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남가주 총동창회 춘계 골프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RSVP해 주시고 회비와 도네이션으로 돈도 넘치고 이제 여러분의 웃음마저 넘치는 아주 행복한 저녁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연대, 고대, 이화여대 동문들과 한인사회에 작은 문화를 바꾸고자 합니다. 첫째, RSVP, 예

약 문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시에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shotgun으로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셋째, 동문회비를 잘 내는 강한 동문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골프대회에서, 고블린 비영리 단체의 아프리카 우물파기 성금에 도네이션, 그리고 JPGA 11살, 13살 골프 신동들의 참여와 장학금 수여를 통해 미래의 PGA를 격려합니다.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의 협조와 팀웍으로 더욱 멋지고 자랑스런 한인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앞장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임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그리고 타대학 동문회 선수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 Medalist: 남-강준현(공대 69)/ 여-나은숙(이대 Guest), ▲ Champion: 남-장예진(사대 94)/ 여-Mrs.박민식(수의대 65), ▲ Longest: 남-김종식(Guest)/ 여-제영혜(가정대 71), ▲ Closest: 송영두(공대 61)/ 여-클라라 김(이대 Guest), ▲ 또한 강신용 회장은 Junior선수



메달리스트 강준현 (공대 69)



골프 신동 Ethan Hong

인 Eric Lee와 Ethan Hong에게 감사패와 각 500\$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도네이션한 Sey Jung(Royal Vista Golf Club 사장)에게는 고마운 뜻을 감사패로 전했다.

그리고 윤연순(미대 87) 동문이 이끄는 "Go Be Leaders"는 "East 3 Hall"에서 열린 "Close Pin Competition"을 주관하여 게임비 \$955이 모아졌는데, 강신용 회장은 이들에게도 감사패와 게임비 전액을 기부하였다. 다음,



go be leaders

동문들은 경품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자연나라 (한진태 사장)에서 기증한 김과 고추장 선물을 나누며 귀가하였다. 이날 접수 및 진행에는 한귀희(수석부회장, 미대 68), 최용준(총무국장, 수의대 81), 조용국(부총무, 사대 94), 이원영(사업국장, 사회대 81), 양수진(재무국장, 간호대 80), 이윤중(부재무, 미대 92), 이종호(행사위원장, 인문대 81), 김양희(행사위원, 음대 77), 김용진(행사위원, 수의대 89), 신호근(행사위원, 자연 81), 유혜연(문화위원장, 음대 79), 손영아(문화위원, 음대 85), 이상호(사대회장, 사대 80), 백옥자(미주동창회 조직국장, 음대 71), 홍선례(미주동창회 간사, 음대 70) 동문 등이 수고하였다. 특히 단체사진 촬영에는 사진작가인 나두섭(의대 67) 동문이 수고하였다.

[기사제공: 홍선례]

미네소타 동창회

2018 제1차 이사회



강사 윤성주(역사80) 동문에게 감사장 수여

지난 3월10일(토) 오후 5시부터 융정식(농화학86) 동문 자택에서 2018년도 미네소타 동문회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양한승(임산공89) 총무의 진행으로 26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융정식 동문이 프로 셰프 못지않은 솜씨로 특별히 준비한 맛있는 요리와 동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만찬 후 윤성주(역사80) 동문의 "역사학에서 시기구분의 문제 - '근·현대' 개념을 중심으로"에 대한 열린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 후 2018년도 예산안 발표와 연간 행사

안내로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사회 "고문" 직함을 "상임고문"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되었고 2018-2020년 상임고문으로 김권식(공대61), 남세현(화공67), 신학철(기계75) 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동문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도 금년부터 배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오는 4월26일(

목)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의 미네소타 방문에 이은 동문과의 만남과 강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석을 바란다는 황효숙(사대65) 회장의 당부마지막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기사제공: 양한승]



뉴욕 지부 동창회

2018 골든 클럽 신년교례회

이번 신년 교례회도 예전과 같이 Daylight Saving Time 시작 후 첫째 토요일인 3월 17일에 Fort Lee, NJ에 있는 Double Tree by Hilton에서 클럽 회원과 가족 등 80명이 모여 순경택 회장의 환영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대영 뉴욕지역 회장,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의 축사, 지난해의 활동, 회계 보고, 신입 회원 소개, 이준형 명예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정인식 전회장의 건배 등 주요 행사를 마치고, 식사와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젊은 회원들의 참여로 몇가지 새로운 순서를 가미하여 꾸준한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준희(음대 95) 회원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다소 미비한 공연 여건에도 불구하고 젊은 후배들의 열정이 돋보인 수준 높은 음악회로 큰 박수를 받았으며, 참석자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만큼 즐거움을 선사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사회를 본 김광수(공대 72) 회원은 전문 사회자와 달리 참석 회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멋진 노랫가락과 어울리는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손대홍(미대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축사

79) 회원은 우리 생활에 쓸모있는 경품 등, 서울 출장 길에 선물을 잔뜩 가져와 모든 참석자에게 한 박스씩 선사했다.

양인희, 이진구 회원은 배원근 관장과 함께 식사시간에 Saxophone(배 관장), Clarinet(양 회원), Harmonica(이 회원) 연주를 수차례 들려주기도 하였다.



신입회원 소개



색소폰, 클라리넷, 하모니카 3중주를 하는 회원들



이준희(음대 95) 회원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

모든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후배 회원들이 주관하여 분위기도 활발해 지고 흥겨운 행사가 되면서 내년 교례회 때는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하리라 기대해 본다.

[기사제공: 양인희, 허유선]

시카고 지부 동창회

2018년 1차 정기 이사회 개최

3월 25일, 일요일, 시카고 근교 글렌뷰 소재 글렌뷰 벅킷에서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2018년 제1차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60여명의 이사를 비롯 총 10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2018년의 임원 소개 및 신입 이사 선출, 활동 계획 보고, 재무 보고, 장학사업 보고 등이 있었다.

특히 장학 기금을 위한 가을 음악회가 확정됐고 젊은 관악세대 동문의 동창회 참여 증대 등을 위한 동창회 홍보예산이 인준됐다. 홍혜례 (사대 72) 동창회장은 금년에 화합하며 젊어지는 동창회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시카고 한인사회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대인의 연락을 당부했다.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창회

회장: 홍혜례
773-896-7987 / sunaachicago@gmail.com

총무: 김훈태
224-392-5613 / ht2shin@yahoo.com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한국교육의 처녀지, 미국에서 교육실험을 하다

허병렬 (사대 42)

서울대 한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 배웠다. 일했다. 어렸을 때는 경성여자사범부속보통학교에서 자랐다. 경기고녀를 거친 다음에는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본과를 졸업했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교사를 10년을 일했다. 서울대 한 울타리 안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쳤다.

미국에서는 1959년-1960년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Education에서 BS를, 1969년에 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에서 MS를 받았다. 1964년 두 번째로 미국에 와서 뉴욕에 살게 된 이유는 내게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교육실험 장으로 뉴욕이 적당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기할 것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생애의 연구 과제를 얻은 것이다. 한국에서 20년, 미국에서 50년 나는 오늘날 현재 교사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일터로 정한 뉴욕

1964년부터 1992년까지 뉴욕한인교회와 퀸즈한국학교에서 귀한 교육 경험을 한 것이 바탕이 되어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과제를 찾게 된 것은 하나의 행운이다. 석사 논문은 '한국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가 주제이었고, 같이 출판한 학생용 교과서는 '재미있는 한국문화이다. 이 연구 주제결정에는 바로 김애마 이대사대 학장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필자는 김 학장님에게 '제가 여기서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편지를 통하여 하였고 교육석사를 받고 나서 보낸 편지의 답장이 왔다. 거기서 한국문화교육을 하는 것과 여기서 사범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목적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나의 멘토이신 이분의 격려는 계획한 일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뉴욕한국학교의 디자인에서 성장기로

뉴욕한국학교가 한 중요한 일은 한민족 해외 이주에 따른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시스템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필자의 역할은 일반 교사처럼 교실에서 가르치면서 교장직을 맡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장직을 맡아서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봉사하였다. 개교하는 당일까지도 교장직을 사양한 까닭은 교육행정보다 교사의 직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는 이사장직과 초급한국어교육과 학부모 문제반을 맡고 있다. 뉴욕한국학교는 1973년 5월 5일 32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개교하였으며 본교 설립이사로는 김홍준, 정한길(재무이사), 임호택 등이 있었다. 어떤 이는 학년이 시작하는 가을에 개교를 하면 될 것을 왜 어정쩡한 5월에 개교를 하는가 궁금해 했다. 그러나 '국어'교육에 목말랐던 당시로서, 가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더구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아닌가. 어린이날은 학교설립기념과 딱 들어맞는 날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곳은 향후 한인사회의 주요행사들

방 (한국무용), 최혜영 (한국노래), 석수산 (서예), 장진일 (태권도), 오영주 (유치반) 선생님 등이었다.

당시에는 교가가 없었다. 3년 후 교가가 정식으로 작곡되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교생이 부를 노래로 '누구하고 노나'를 선정해 불렀다. '까지 까지 까치는/ 누구하고 노나/까지 까지 까치는/ 까치하고 놀지.' 본래는 '피골 피꼬리'로 되어있는 노랫말을 길조인 까치로 바뀌서 불렀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노랫말을 바꿔 부른다. '까치하고 놀지를 '누구하고나 놀자'로 바꾼 것. 글자 몇 자를 바꾼 것이지만, 시대의 변화와 교육이념의

을 운영할 정도였고, 다양한 컬리큘럼 운영으로 학교는 즐거운 한국문화 학습 장소가 되었다. 뉴욕한국학교 문집은 학교의 족보로 존재한다. 학교에 몸담았던 모든 이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학교의 변화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1973년 개교 첫 학기부터 발행된 문집은 2017년 현재 64호까지 발행되었다. 처음 20년간은 매학기마다 발행했다. 소식지 역할이 컸던 까닭이다. 하지만 통신의 발달로 소식지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93년 이후 일 년에 한 번씩 발행되어 왔다. 문집은 철저히 모든 학교구성원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 학생의 성장기록으로 남는 것은 교과목의 점수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성장을 반영하는 글모음이다. 전교생이 집필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글도 실는다. 이로써 재학생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는 물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진다. 편집 또한 원본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원고에 손을 대지 않는다. 즉 걸보기 좋은 문집, 잘 쓴 글모음이 아닌, 학교공동체 전원의 살아있는 기록물이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마중물

재미한인학교협의회(NAKS)는 뉴욕한국학교의 개교 10주년 기념행사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모임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전신이고, 현재는 미국 전역에 1,000여개 학교의 참가교가 있으며, 2017년에 제37회 전국 학술대회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다.

필자는 NAKS(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에서 제4대(1988년-1990년) 회장과 이사장직(1992년-1994년)을 맡았다. 특기사항으로는 '한인교육 연구'를 편집인으로 1989년 창간호부터 2002년까지 제 20호를 펴냈다. 이는 모두 NAKS 성장발달을 위해 공헌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거의 자청하여 봉사하였다.

뉴욕한국교육대학의 결음마

어느 날, 뉴욕시 동쪽 50가 부근을 걷다가 보통 살림집 건물에 몇몇하게 미국 사람학교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살림집이 학교라고? 더 놀라운 것은 필자가 어느 틈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일이다. 사무실에서 만난 분에게 학생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에게 필자는 "그게 아니고..... 부럽습니다. 저도 학교를 가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한테 간단히 설명하였다. 한국학교 수요가 늘어가는 현상, 교사들의 상호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렸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였고, 필자는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그가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더니 책상서랍을 열고, 열쇠 세 개를 꺼내 주었다. 정문, 사무실, 2층 교실 열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당장 렌트비 없이 사용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1991년 봄 3개월 동안 가칭 '뉴욕한국교육대학'의 실험기가 있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학교에서 교육 강의를 제공하였다. 과목은 당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선정하였고, 강사는 이론과 실재를

최용완(공대 57)동문 인문학 강좌



최용완 (공대 57)

지난 3월 16일 남가주 LA에 중식당 용궁에서 최용완 동문은 미주문인협회(회장 이윤홍) 제1회 인문학 강좌의 강사로 초빙되어 역사이야기를 발표를 했다. 미주문인협회 회원과 서울공대 동창회장 한효동을 비롯한 동문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

1961년 승례문(서울 남대문) 중수공사하며 시작한 최용완 동문의 역사공부의 내용이 <동아세아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로 한국 문예지 <자유문학>에서 연재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Power Point Presentation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강의했다.

상고사

12만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현대인류는 바닷길 따라 5만 년 전에 동아세아에 이르렀고 처음으로 겨울철을 맞았다. 겨울동안 살아남으려 한반도 남단에서 농사짓는 마을이 나타났다. 멀리서 바위를 끌어와 고인돌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미 열린 바닷길 따라

두루 설명할 수 있는 분, 학생들은 동그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였다. 예상외로 학생들 20명이 모였고 출석률도 좋았다 하지만 3개월 후에 종강식을 해야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필자의 계획을 오해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의 성장은 미래로

미국은 넓다. 땅만 넓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드넓은 처녀지이다. 이 느낌이 1960년 초 미국에 왔을 때 '한국계 미국 자녀를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이다. 2014년 현재 필자가 미국에 사는 햇수는 51년이고, 교직 생활은 국내외를 합해 70년이 된다. 더욱이 그 교직생활의 대상이 3세의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으로 분포되어 4만 여 곳에 유적을 남겼다. 인류문명은 만주 요하지역에서 황산문화로 시작하였다.

고대사

만주지역의 동이훈족은 적석총 피라미드를 짓고 석탄불에서 금속을 발견하여 거마(車馬: chariot) 만드는 기술을 얻었다. 바닷길 따라가서 아랍인과 아프리카 흑인의 노동력을 맞아 이집트 문화를 건설하였다. 동이훈족 고조선은 고구려와 함께 하나라 상나라로 이어졌다가 중화민족의 주나라로 이어져 중국역사가 시작했다. 한국인의 핏줄이 만주, 몽골, 티베트로 이주해 들어가 비단길을 열어 지중해 지역 로마를 허물고 다시 세웠다. 동이 훈족 칭기즈칸은 비단길 따라 인류역사의 가장 큰 몽골제국을 세우고 유럽을 압록기에서 일깨워 현대 세계사가 시작하였다.

현대사

유럽은 동아세아의 지식을 배워 세계침략에 나섰다. 문예부흥, 종교개혁, 산업혁명을 거쳐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세웠다. 미국은 북미대륙의 동아세아 원주민을 몰아내고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노동력을 대량으로 미국을 건설하였다.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은 전기, 자동차, 비행기를 발명하며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세계는 차츰 미국과 동아세아가 경쟁하는 오늘에 이른다.

현대 인류는 이제 사춘기의 나이에 접어들

지 미국과 한국교육기관에서 골고루 가르칠 기회가 있었음은 다행이다.

그것도 미국에 닿은 지 얼마 있다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까닭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교육석사를 5년 걸려 받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미국에서 할 일이 명확해져서 졸업논문의 주제가 '한국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였고, '재미있는 한국문화의 제목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여서 제출하였다. 이는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뉴욕한인교회의 한국어반 교사의 체험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미국에서 50년 동안 각 단계의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육연구기관에서 그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미국 한국학교의 새로

이미화(미대 77)) 동문 개인전

Sorrow, Delight and Rebirth



Rebirth I, watercolor on paper, 7"x19"



이미화 (미대 77)

이미화 동문 개인전이 Judy Chang 변호사 (640 E. Palisade Ave., Suite 2nd fl. Englewood Cliffs, NJ)주최, 교수장 큐레이터 기획으로 3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Judy Chang 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힐링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꽃들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꽃이라면 대부분 아름다운 꽃과 화려함을 떠올리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 이미화 작가의 꽃들은 그 아름다운 이면에

어 인구폭발로 온 지구를 차지한다. "신은 죽었다."라고 반향한다. 식욕이 왕성하여 온 지구 표면은 유기물질생산지가 된다. 사춘기 육체적 성장은 인구폭발의 왕성한 감정과 소유욕으로 폭력과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 사춘기의 생식기능은 다음세대 아기를 출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시험관 아기의 생명력이 로봇의 체구에 결합되고 인공지능이 아기의 뇌에 주입되며 다음세대의 인류가 태어난다.

미래사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주

슬픔, 외로움 그리고 아픔과 강함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미화 작가는 인생 여정을 그녀의 작품처럼 걸어 왔다. 그녀의 작품속 꽃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향기에 실어 크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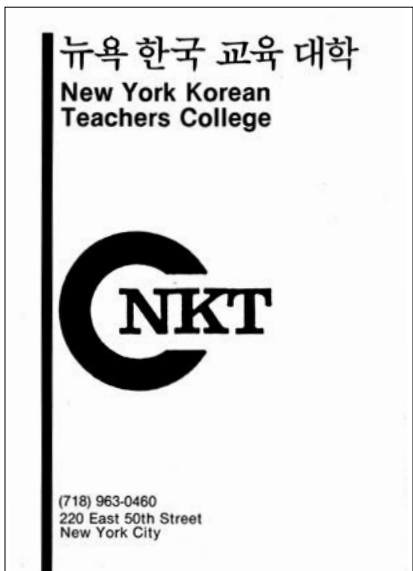
모교 미대에서 산업 디자인과 미술 교육을 함께 전공하였고 도미 후, 아이오와 대학에서 디자인과 드로잉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아이오와 주립대와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직을 거쳐, 킴벌리클락, 클레이트파몰리브와 크레프트 등 세계적인 소비자용품 회사들의 디자인 전략 중역을 지냈다. 샌프란시스코 월튼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강연을 하는 등 디자인 전략가로서 세계의 선두에서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순수미술 작업을 해왔다.

몇해 전, 아들을 잃은 후, 전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아들이 가고싶어하던 영화의 길을 대신 가기로 작정, 일년전부터 시작한 연극 인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국 영화배우협회의 회원자격을 얻었으며, 연극과 영화 그리고 그림으로, 짧게 살고 긴 아들을 기리며 창작의 길을 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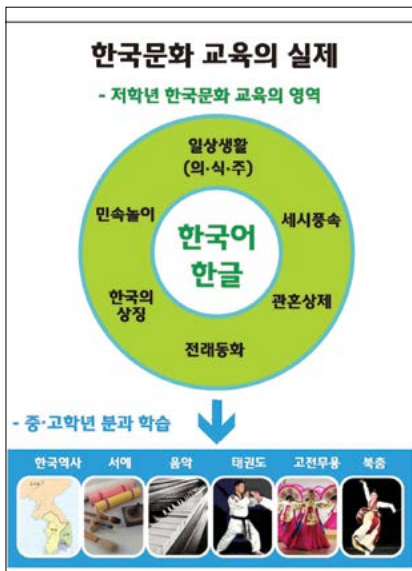
도관은 동아세아에 귀향한다. 사춘기 나이에 아이를 기르기 위한 내조와 외조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현대인류는 본능적으로 정성을 다해 다음세대를 기르는 가정생활에 몰입하는 평화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지구는 오염이 심각하여 생활은 차츰 어려워지고 생명의 시한이 없는 다음세대는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의 어느 곳에 복음자리를 찾을 채비를 하는 때가 온다. 인공위성이 달과 화성에 이르고 우주시대를 예감하는 현대인류는 지금 다음세대를 길러 보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동아세아에서 우주인간을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어 갈 미래를 예측한다.

생 150명, 한국인 학생 50명 함께 200명이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이었다. 그날 필자는 '좋은 선생'이 되는 것으로 이를 현실로 증명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50년 미국생활은 뉴욕한국학교와 미주 한국학교의 성장과 함께하였다. 미국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환경은 새로운 교육실험 장소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뉴욕시는 언제나 활력에 넘치고, 한국계 이민의 자녀수가 날이 증가하였으며, 우수한 교사진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모이는 지역임은 얼마나 다행이었나.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즐기던 그림 그리기, 글 쓰기, 연극하기의 꿈을 뉴욕한국학교 경영을 통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었다. 이 행복을 주신 주위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외친다. '나는 형운



이 개최될 정도로 교통과 시설등 현대적인 제반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뉴욕한국학교의 개교 교사진은 한국어: 허병렬(초급), 김혜순(중급) 진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노랫말은 좁은 뜻이라고 생각했다.

뉴욕한국학교는 45년 동안 하루하루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학생들의 수효는 12학급



김지영 (사대 69)

'우주 보살'을 기다리며

지구인이 화성인을 만난다. 2033년 8월 어느 날 밤. 화성의 어느 이름 없는 바위 산. 화성인이 지긋한 눈길로 지구인을 본다. 지구인이 말을 건다. 화성인이 못 알아듣는다. 화성인이 손을 들어 지구인의 머리를 만진다. 그리고 둘은 영어로 대화한다.

둘이 어색한 악수를 한다. 손과 손이 서로를 관통한다. 맞닿은 느낌도 없이 안개를 스쳐가듯. 지구인은 자신의 따뜻한 가슴을 쓸어보고 안심한다. "나는 진짜야 (I am real)." 화성인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안심한다. "내가 진짜고, 저놈은 허깨비 (phantom)."

"너의 종족은 다 죽었는데 너만 어떻게 살았나?" 지구인이 묻는다. "웃기는 소리. 우리가 왜 죽어. 모두 멀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지금 저 운하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가고 있어. 저기 도시가 안 보이니? 우리 동네야!" 화성인이 대답한다.

지구인이 말한다. "저 도시, 이제 폐허야. 기둥은 부러지고, 거리에는 먼지뿐. 운하에는 말라버리고." "네 눈이 멀었군. 운하에는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여인의 가는 허리 같은

배, 그 배 위에 어여쁜 여인네들이 있지. 난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야. 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사랑도 하고." 화성인이 말한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나, 나의 것, 나의 편'을 추구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다."

지구인과 화성인의 논쟁은 끝이 없다. 둘은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본다.

레이 브래드베리(Ray Bradbury, 1922-2012)의 소설 '화성 연대기(The Martian Chronicles)'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는 공상과학 소설가로는 드물게 폭 넓은 독자층을 가진 미국 작가다. 그의 1953년 소설 '화씨 451도(Fahrenheit 451)'는 미국 고등학교 과정의 필독 도서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상을 인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우선 나, 인식의 주체가 있다. 그리고 인식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에서 입자 형태의 신호가 나와 나의 눈, 귀, 코, 혀, 몸에 전해지면 나의 의식이 그 대상을 파악한다.

인식 주체인 나와 의식 대상인 온 세상은 당연히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것들이 있는 이 세상,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것을 챙겨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따라서 우리네 삶이 고단하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나, 나의 것, 나의 편"을 추구하

다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다.

불교에서 보면 이런 충돌은 제대로 알지 못해(無明 무명) 일어나는 번뇌이다. 제대로 알고 보면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일 따름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조화일 뿐(一切唯心造 일체유심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심층의식, 아뢰야식이다.

아뢰야(alaya)는 산스크리트어로 "저장고"라는 뜻. 히말라야 (Himalaya)는 눈(hima)

의 저장소라는 의미이다.

지구인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폐허화 된 화성 마을은 그의 마음이 만들어 낸 현상이다. 그 자신도 그 풍경의 일부이다. 다만 그는 그 그림 바깥에서 대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화성인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만들어 낸 살아있는 화성을 보고있다고 생각한다. 아뢰야식의 조화이다.

그 심층 의식 속에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의 전생과 이생의 삶을 담은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싹이 터서 내 삶이 현상으로 전개된다. 나도, 너도, 그 것들도 그 현상 속에 하나의 부분일 따름이다. 나와 너와 그것들 간에 구별이 없다. 그것을 깨달으면 나를 지켜야 하고, 나의 것을 챙겨야 하는 고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아뢰야식은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 서로가 서로의 종자를 품는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현상 세계를 경험한다. 이런 인류 공생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도를 구하는 일이다.

도를 깨달으면 모두 한 마음(一心 일심)이 되고 한 몸으로 느낀다(同體大悲 동체대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살이다.

소설 속의 화성인과 지구인은 아직 무명과 아집 속의 존재. 그래서 그들의 '나의' 세계를 고집한다. 화성과 지구를 아우르는 우주 보살들이 나타날 때까지.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ime \ Date		6월 15일 (금요일)		6월 16일 (토요일)		6월 17일 (일요일)	
오전	7:00 - 8:30			조찬			
	8:30 - 9:00			등록 접수			
	9:00 - 10:00			평의원 회의	오전 회의		
	10:00 - 11:30				점심 식사		
	11:30 - 12:00				오후 회의 속개		
오후	12:00 - 1:30	등록 접수			평의원 회의		
	1:30 - 2:00						
	2:00 - 3:00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국제정치학 이재진 교수		특별 강연 (NE 동창회)			
	3:00 - 3:30						
	3:30 - 4:00	"가제) 한미동맹의 방위전략" 국방부 김경욱 과장					
	4:00 - 5:00						
	5:00 - 6:00	휴 식		휴 식			
	6:00 - 6:30	전야제	환영사, 포상자 시상, NE 동창회 장학금 수여			만찬	환영사, 포상자 시상, 미주 동창회 장학금 수여
	6:30 - 7:00		저녁 식사	식사			
	7:00 - 7:30		참석자 소개 및 친목	주중광 교수 특강			
	7:30 - 8:00			음악회 및 친목			
	8:00 - 8:30			지부장 모임			
	8:30 - 9:00						
	9:00 - 9:30						
	9:30 - 10:00						
	10:00 - 10:30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7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 17일 (일)

장소: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el: 1-508-653-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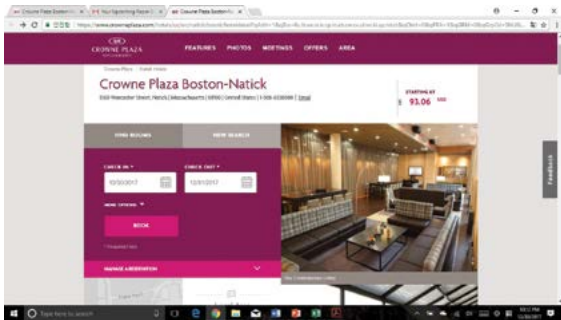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8년 5월 15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5.00 plus tax/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Reservations Department (800-265-0339)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래 예약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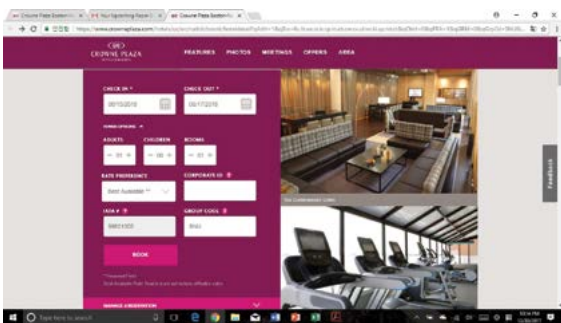
(https://www.crowneplaza.com/redirect?path=hd&brandCode=CP&localeCode=en®ionCode=1&hotelCode=BOSNK&PMID=99801505&GPC=SNU&viewfull-site=true)



(날짜 입력 전 화면 캡처)

예약 사이트에서 평의원 회의를 위해 머무르실 날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group code: SNU**로 입력된 예약사이트

로 이동하며 나머지 게스트 정보 등을 입력하고 예약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날짜 입력 후 화면 캡처)

특별 할인 가격 (\$135.00 plus tax/night)은 평의원 회의 기간 (6월 14일 ~ 18일) 동안만 적용됩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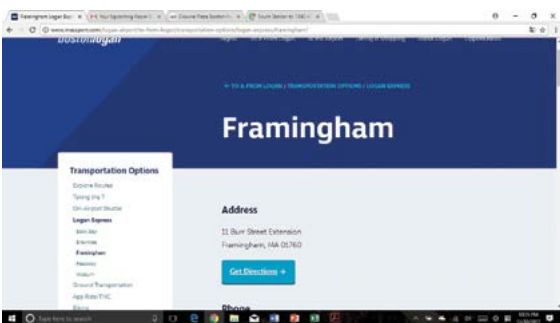
Boston Logan Airport에 도착 후 공항 버스나 택시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①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Framingham 방향으로 가는 Logan Express bus servic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방향의 다른 운행루트가 있으니 반드시 Framingham으로 가는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버스는 주중에 매 30분마다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임은 성인 왕복 \$22 (65세 이상 \$20)입니다. Framingham bus terminal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이며 호텔에서 Shuttle를 운행합니다. 도착하셔서 Crowne Plaza Boston-Natick로 전화 (1-508-653-8800)를 하시기 바랍니다. Logan Express bu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이미지 참조) (http://www.massport.com/logan-airport/to-from-logan/transportation-options/logan-express/framingham/)

②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23 마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Logan Express bus 관련 화면 캡처)

③ 응급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래 1-978-835-0100, 이상운 1-508-251-9691, 장수인 1-978-264-2988

기차 교통편 안내

Amtrak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Boston South Station에 도착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20 마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호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평의원 회의 관련 문의는 다음의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래 1-978-835-0100, 이상운 1-508-251-9691 장수인 1-978-264-2988



최일단 (미대 55)

겸재 정선의 금강산 그림 앞에서

2018년 2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움에서 ‘금강산’을 테마로 우리나라 전통수묵 산수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나는 50여년 전에 한국을 떠나 살아 오며, 모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져 ‘동양화’라는 총칭으로 불리는 전통 먹그림은 그것이 그것처럼 느껴지는 실상이지만, 금강산 그림을 마주하며 조선시대의 그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조선의 회화는 거의 중국 회화의 영향 속에 있었고, 이상향을 짜맞추고, *개자원 필법에 따른 것이었다. 고려말에 중국에서 전해진 유교전통이 주자학으로 전해지고 겸재 정선(1676-1759)의 시대에는 다시 우주의 본체와 인성의 복합적 연구의 결과로 성리학이 조선의 국시가 되었다.

문화사적으로는 1443년 10월 9일에 반포된 훈민정음의 영향이 커져서 문자와 언어 생활에서도 함축성이 농후하고 뜻이 모호한 한문문자로부터 자연적 언어생활의 표현 문자인 우리 글이 쓰여져서 글과 노래를 발전시켰다.

송강 정철(1536-1593)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사미인곡, 관동별곡 등 가사를 지었으며 해금강, 내금강, 외금강을 유람하며 44울조의 가사를 지었다. 윤선도(1587-1671)는 시조의 대가로 국문학사상 정철과 쌍벽을 이루었다. 정철의 관동별곡을 주제로 한 관동舞는 8명의 무인이 양편으로 갈라서서 관동별곡을 병창하며 춤을 추었다. 향악의 발달 등 문화 전반의 발전에 따라 회화에서도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실제로 답사 묘사한 실경산수로 또한 발전하였다. 조선 화가 중에 정선보다 앞선 시대의 화가인 신사임당(1504-1551)은 유학자 율곡의 어머니로 어려서부터 경전을 읽었고 자수와 서화에 능하며 안견의 영향을 받았으며 산수, 포도, 초충도에 뛰어났다. 학문적 사상과 예약이 성했던 시대적 조건에서 정선의 실경산수가 창출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조선 고유의 화풍을 이룬 것이다.

정선과 거의 동시대 화가 강세황(1712-1791)을 비롯하여 뒤를 이어 단원 김홍도(1760-?)는 궁중에 출사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산수화, 인물화, 불화와 정묘한 필치와 천진하고 해학에 출렁이는 사람들의 풍속화는 또 얼마나 다양한가!

오원 장승업(1843-1897)은 대개의 서화가가 사대부나 양반인데 반하여 어려서 고아가 되어 더부살이를 하며 어깨너머로 스스로 그림을 익혔으나 필치가 호방담대하고 소탈하여 안견(조선초기), 김홍도와 함께 조선조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이렇듯 정선을 필두로 조선화가 만개할 듯 한때에, 시대적으로 조선 말기의 국력쇠퇴

와 이어지는 열강들의 각축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조선은 일본의 한일 합병조약(1910년 8월 22일)에 묶이고, 문화말살 정책으로 모든 것이 침체되었다. 일본은 우리 문화를 중국문화의 변경지류로 치부하여 고구려 벽화와 안견이후로는 문화가 없다고 폄하하였고 차차 침략국 일본으로 유학가는 조선 사람도 늘어났던 것이다.

금강산전경도 부분, 비단에 옅은색, 33.0x54.3cm



이런때에 종교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조선의 천주교 교구 수장인 프랑스인 신부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1854-1933, 한국명 민덕호)은 미국 개신교의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함과 수도원 건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독일 상트 오틸리엔(Sankt Ottilien) 분도회 수도원을 찾았다. 분도회 수도원의 총원장(총재)은 부정적이었던 의견을 바꾸어 1909년초 두 명의 신부를 서울로 파견하고 같은 해, 네 명의 신부를 추가로 파견하여 서울 낙산 언덕 백동(현재 해화동)에 3만 평 대지를 구입하고 수도원과 직업학교를 지어 전교 사목을 시작하였다. 1911년 오틸리엔 수도원 총재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년 ~ 1956년)의 일행 7명이 1월 7일에 배로 떠나서 중국과 일본을 둘러보고 2월 21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낙달 후인 6월 24일 베버와 다른 한 명이 독일로 돌아갔다. 그가 체류한 낙달 동안 베버는 평양, 신천까지 전국을 방문하여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호의를 엮어 '고요한 아침

의 나라'(Im Lande der Morgenstille, 1915)라는 책을 발간했다. 우리는 박해에 허덕이기 시작했을 때, 베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우리 문화를 알렸던 것이다. 그가 낙달 후, 조선에 떠나던 날인 1911년 6월 24일 일기에는 “쏟아지는 소나기도 한국민족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간직하게 하는 밝은 색채를 지워 버릴 수는 없다... 국가로서의 한국민족은 멸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민족을 장사지내고 돌아가는 기분이다. 나는 운 좋게 많은 유물들이 아직 생생한 색깔을 간직한 마지막 순간에 구해 낼 수 있었다.”라고 썼으며, 그는 특별히 한국 의상의 색상과 화학 염료로는 절대 불가능한 천연염료의 꽃같은 색채와 의상 등이 미구에 그 아름다움을 상실할 것을 예견하여 크고 작은 여러가지를 수집하여 독일로 보냈으며 비용으로 지출한 영수증도 보냈다는데,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노르베르트 베버 총재는 1925년 두번째로

무를 끝내고, 1967년 켈른 대학에서 미술사 공부를 시작하였다. 아무데도 한국 미술 관련 자료가 없었는데, 켈른 시립도서관의 동아시아 박물관 도서관에서 일제때 출판된 간송 미술관(설립자 전형필, 1906-1962) 발행의 책자에서 정선의 ‘청풍계도’와 마주했고 거기서 중국,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거친 듯, 서슴없는 붓질에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선에 몰입하게 되었다.

박사 논문 자료수집을 위하여 8년여 만에 서울에 돌아왔으나 대학의 문은 닫히고, 정치적으로 어수선 한 중에 ‘한국명화 500년’ 준비를 하면서 최순우, 정양모와 함께 일하며, 자료에 접할 기회도 많고, 자료수집, 사진 촬영이 수월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논문의 열개가 잡혀가던 중, 대학 도서관에서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총원장 노르베르트 베버가 1927년에 출판한 ‘한국의 금강산에서’라는 책을 발견하고 거기 실린 3폭의 정선 그림을 보고 독일 오틸리엔 수도원에 문의했던 바, 수도원에 정선의 그림은 없다는 회신(1973년 4월 29일자)을 받고 낙담하였다.

준비한대로 논문을 제출한 1975년 7월, 충동이 일어나서 독일의 친구와 함께 오틸리엔 수도원에 갔고, 창고의 유품들 속에 방치되어 있던 정선 화첩을 발견하여 슬라이드로 찍을 수 있었다. (그 우여곡절은 생략한다.) 모두 21폭의 그림이 조잡하게 표구가 되어 있었다.

그후, 1978년 수도원 벽을 공사하면서 벽속에서 베버 총원장이 찍은 다양한 영화 필름이 쏟아져 나왔다. 2차대전 중, 나치의 수색에 대비하여 많은 문서들을 태웠고, 꼭 보존해야 할 것은 벽속에 감추었는데, 많은 수도사들이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벽속의 필름은 잊혀졌던 것이다.

1975년 유준영 씨가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정선의 화첩을 발견하기까지 그 화첩은 50년 동안 수도원에서 잠자고 있었고, 그후에도 전쟁과 두번의 화재를 용하게 피했고, 굴동몽 경매 회사의 유혹을 뿌리친 오틸리엔 수도원이 자진 반환 조약에 서명하기까지 또다시 30년이 걸려서 많은 곡절 끝에 2005년, 80년 만에 왜관 수도원에 영구대여 형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 건의 문화재를 되돌려 받는데, 얼마나 많은 무형 유형의 값이 치루어졌던가? 대략 15만 점 이상의 문화재가 국외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걸린 정선의 그림을 보면 실제 금강산 만물상과는 다르다. 그 령게 한 눈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뒤로 병풍처럼 하얀 빼갈고, 창, 갈갈은 돌이 촘촘히 겹쳐서 서 있고, 급히 깔 내려가서 골이 깊은 분지가 되어 있으며, 그 골산(傳山)과 육산(肉山)의 구분이 모호한데, 정선은 병풍처럼 겹겹히 흰으로 늘어진 돌산을 아카디언에 바람을 넣어 펼쳐듯이 그 밑의 비어 있는 분지로 펼쳐서 재배치를 하여 압도적인 풍경을 만든 것이다. 갈피마다 꽃한 절이나 명소를 지도처럼 그려 넣고 두드러지게 하려고 붓질과 구도를 단순화, 평면화시키기 도 하였는데, 말년의 작품일수록 단순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경산수란 실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재생력, 창의력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현대의 미술 이론에 부합된다. 이런 특



한정민 (농대 87)

나의 베프, 이모가 그리운 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더욱 생각나고 보고픈 사람이 있다. 어린시절 많은 추억의 보따리를 선물해주었고, 어른이 된 후에는 나의 베프(best friend)가 되어 주신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의 이모다. 친정엄마의 유일한 자매였던 이모는 5살 아래 동생을 30년 전에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몇 년 동안 칼로 가슴이 난도질 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실제로 심장에 느껴진다며 조카인 나와 동생들을 친자식 이상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일제강점기인 35년도에 태어난 이모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해방 후에는 외갓집이 인천에 정착하셨다. 장녀인 이모는 가게를 하셨던 외할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맡아야 했고, 오빠와 친동생 3명 뿐 아니라 서울로 유학 온 사촌들의 도시락을 매일 열 몇 개씩 싸셨단다. 공부 욕심 많았던 친정엄마가 교복 입고 학교 가는걸 보고 가끔 심통부리며 울던 외할머니가 미안해서 새 옷을 사주곤 하셨단다.

영화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밤에 몰래 영화 구경을 갔다 오면 밤늦게 공부하던 친정엄마가 문을 열고 주곤 했단다. 하루는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어서 담장을 넘어 들어가니 외할아버지가 방문 앞에 딱 버티고 서있어서 둘 다 매를 맞았으며 옛 추억의 이야기를 맛나게 풀어내신다. 여전히 뮤지컬과 영화, 음악을 좋아해서서 한국에 가면 같이 뮤지컬을 보고, 종로의 실버극장에 가서 추억의 흑백영화를 함께 즐긴다.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아주 잘하시는 이모

랑 차로 달릴 때면 종종 창문을 모두 열고 음악을 크게 틀고 같이 따라 부르며 달리고 한다. 십여년 전 한국일보에 버지니아 비치의 체스픽 다리가 소개된 글을 읽고



야!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다리를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라고 하셨다. 운전하기를 즐기는 나는 다음날 바로 왕복 500마일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갔다. 바다 위에 오솔길처럼 얹혀있는 왕복 40마일의 다리를 이모가 좋아하는 나혼아 노래를 크게 틀

고 창문을 열고 신나게 달렸다. 하늘을 날 듯 행복해하던 칠순 이모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여름과 겨울 방학이면 사촌들 예닐곱과 어울려 우리는 인천 이모네 모여 들었다. 어려운 살림에도 이모는 늘 반갑게 맞아주셨고 보통 한 두 달을 죽치고 지냈다. 간식을 해줄 때면 우리는 장난기가 발동해 '주모! 여기 빈대떡과 떡볶이 육인분'이라고 외치면 '네! 여기 대령입니다요~'하며 장단을 맞춰주셨다. 반죽한 밀가루를 밀대로 얇게 밀어 손칼국수를 해주셨고, 주전자 뚜껑을 눌러 만든 만두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도 빚어주셨다. 밤

가방끈은 짧지만, 이모는 지혜와 재치가 넘치신다. 마음이 힘들 때 이모랑 통화하면 항상 힘이 난다. 연년생을 키우며 이모에게 힘들다고 느꼈다면 '애들이 예쁘냐?'라고 물으셨다. '그럼, 너무 예쁘지'라고 답하니 '세상에 공짜가 없어. 어떻게 힘들지 않고 그냥 예쁘기만 하니?'라고 하셨다. 성당을 다니지만 기도를 못 한다며 '그냥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신단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이모는 어느 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니 '그럼, 건강이나 자식을 좀 힘들고 돈 있는 건 어때?'라는 음성 이 마음에서 들려와서 '예고... 아니예요. 저 그냥 돈 없어도 돼요. 그냥 지금이 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한참을 웃었다.

2-3년에 한 번씩 빌 때마다 조금씩 기력을 잃어가는 이모를 뵈는 마음이 찢히고 가슴 아프다. 나중에 이모의 세례명이 '모니카'인걸 알고 스스로 참 뽀듯했었다.(나의 미국 이름이 모니카). 얼마 전에 버지니아 비치의 다리를 갔다 온 후 당신의 젊은 시절을 조카들에게 넉넉히 내어준 이모 생각이 많이 났다.

4월에 한국방문을 하는데 이모랑 제주도 올레길을 함께 걷고, 여행도 함께하며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이모와의 추억 다지기를 하려한다.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떠나신 후, 후회하지 않도록...' 이라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그리운 느낌은 축복이다'이란 박완서의 글처럼 이모는 내 삶의 큰 축복이었음을,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해야겠다.

성을 이용노 선생은 '동양화의 추상성'이라는 말로 설명하였었다.



금강산에서

나는 2005년, 1월, 11월, 두 번 금강산에 갔었다. 여러가지 말할 것이 있으나 작파하고, 구룡폭포의 오른쪽에 긴 돌벽이 폭포와 나란히 흘러내렸고 거기에는 글자 한자가 사람 키만큼 큰 한자 세자로 미륵불(彌勒佛)이라고 새겨졌는데, 100여년 풍상에 뚜렷하지는 않지만 읽을 수 있다. 너무 뜻밖이었다. 폭포 앞 누각에 50대의 안내원 같은 사람들이 관광객과 담소도 하고 설명도 하기에 그에게 내

가 말했다. "저 글씨를 쓴 해강 김규진 선생은 내 그림 선생님의 선생님이라 무척 반갑



다.'라고, 그 안내원이 답하기를 금강산 곳곳의 돌 벽이나 돌기둥에 오랜동안 사람들이 글을 새겨 풍광을 망친다고 모두 쏘아서 없

앨 때, 구룡폭포의 미륵불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 지우지 말라고 나라에서 교시해



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해강 김규진(1868-1933) 선생이 미륵불이라는 글씨를 쓰는 댓가로 거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

고 낙관으로 자기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설이었다. 오틸리엔 총원장 노르베르트 베버가 두번째 방문 때 그린 수채화(좌측)에 박연폭포의 오른쪽에 그 글씨가 보인다. 잘 보이도록 도로로 희게 칠했던 것 같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움의 이슬 방울같이 영롱하고 작은 한국관에 서서 현대 한국화의 대표로 출품된 고안 이용노 스승의 금강산 그림에 눈을 주고 생각은 구룡폭포 김규진의 미륵불에 이른다. 눈을 감으면 금강산의 그 모두가 생생처럼 빛나며 눈송이처럼 어깨에 내리는 것이 보인다.

* '개자원화전' : 속칭 개자원화보라고도 한다. 모두 3집으로 이루어진 동양화기법에 관한 책. 제1집은 산수, 제2집은 난, 죽, 매, 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3집은 화훼, 초충, 화목, 조수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제1집은 1679년에 제2집과 제3집은 1701년에 각각 다색목판으로 찍었다. 이 목판을 판국이 남경에 있는 개자원이라는 별장이어서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중국화의 기본 기법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

미국속의 나의 발자취_ 이순신 숭모가 이내원(사대 58) 동문

이순신 미주 교육 본부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연계교육의 의미

YouTube 영상자료 <이순신 생생 자료 강연>의 완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이 80에 이르고 보니 번역 '이대로 대책없이 놓아 둘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서둘러 녹화를 마쳤기 때문에 스스로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최신 연구 성과의 인용과 자료 중심의, 생생한 강연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주는 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추천명에 달하는 교사들의 재교육용으로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이순신을 배우려는 모든 분들에게 이순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신 좋은 자료라고 느껴집니다.

과찬입니다. '이순신'하면 한국사람으로 모른다는 사람이 없는데, 실상 이순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한국 이순신 학계의 판단이고, 저도 철저하게 실감하여 <이순신 바로 알기>라는 단편을 미주이순신 교육본부 웹사이트(www.yjsunshinusa.com)에 올렸습니다. 한국인 대다수가 '나는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이순신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부적절한 이순신 교육자료를 게재한 정부 교육 당국자라는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해방 직후 이순신 교육을 주도하신 이은상 선생은 일본의 압제에서 풀려난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충무공 이순신을 승패를 다루는 영웅주의 사관으로 조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웅 이순신> 같은 부분적이고 편향된 시각의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불멸의 가치인 이순신의 정신과 인성으로 대변되는인격적 완성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일탈하고, 겨우 일개 무장의 테두리로 가두어 버린 한계성을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1960년대에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현충사 대대적 복원 확장사업을 진보정치 세력이 '박정희의 장기집권 포석'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어이없게도 이순신은 보수 진보 사이의 정쟁거리로 추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전국 단위의 이순신 재단이 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족적 위인이 아니라 그물에 걸린 슬픈 역사 인물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참 마음 아픈 현실이네요. 그러나 미국에는 이 선배님 같은 열성 이순신 숭모인이 계셔서 저희 동창회보다 워싱턴 언론매체에 수많은 교육적 기고를 하였고 또 미주 최대의 한인 교육 기구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와 연대하여 이순신 정신을 교육함으로써 재미2세들의 인성, 정체성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니 참 다행이고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네, 활동의 환경은 복 받았는데 자랑이라는 표현은 아주 거북스럽습니다. 임진왜란 초반 조선의 육전에서는 패전을 거듭하여 나라의 운명이 안개 속일 때, 바다의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께서는 48세 5월의 육목해전



한인 인재 육성을 꿈꾼다

3월 하순, 워싱턴 지역 한국계 신문과 방송에 이순신 교육운동가 이내원(사대 58) 동문의 YouTube <이순신 생생 자료 강연> 집의 완성 배포를 보도했다. 이 동문의 이순신에 대한 지극한 숭모 역정을 전해 들어 보기로 했다.

안선미(충대65), 서울대 워싱턴 지역 동창회장

으로 시작하여 두번째 사천, 당포 해전과 7월의 한산대첩까지 3개월 만에 3연승하여 벼슬이 가신대부, 자헌대부, 정헌대부로 연달아 가자되자 오히려 '공은 없는데 이름만 난다'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살려내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순신의 이 겸손은 우리 한인들의 민족성 개량을 위해 가장 시급히 본 받아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유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문들이 이내원 선배님이 어떠한 연유로



기록화, 이순신 호행도

이순신 연구 숭모의 길에 들어 서게 되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심지어 집안 선조일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 중에도 종종 제가 이순신 장군과 동생 동본이냐고 물어오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조선의 로할 해밀리로 이순신을 괴롭힌 선조 임금과 같은 전주 이씨인데 그 속죄를 위해서 덕수 이씨이신 이순신 숭모운동을 한다고. 제가 이순신 연구에 빠져 들게 된 것은 전혀 우연한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시간이 다소 남아 소일 삼아 헌 책방에 책을 빌리러 들어 섰는데 맨 높은 단에 검은 표지의 <임진왜란> 7부작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간단한 <성웅 이순신>의 인상으로는 그저 신나게 이긴 승리 해전일뿐인데 무얼 그리 많이 쓸 것이 있길래? 생각하며 서너 권을 훑아 내었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장을 지내신 소설가 김성현

교육이 너무나 부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나와 같은 오도된 지식에 함몰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순신 바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활동의 초기, 이 선배님께서는 자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 문인회와 공조하여 <이순신 문학상>을 제정하고 학생은 물론 성인세대까지 응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때는 한국 학교 학생을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나 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WAKS) 같은 기관을 통해서 응모시킨 것이 아니고 신문공고를 통하여 모집했기 때문에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부모의 권유로 많이 응모했었습니다.

연설집에도 두 번 인용하여 소개 되었습니

다만 이순신미주교육본부 홈페이지의 역할이 중요한 듯 한데 그 개발의 필요성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순신 문학상'으로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구상한 2003년 당시 가장 큰 난관은 해외인 이곳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이순신에 대한 읽을 거리를 접할 길이 없다는 절벽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자체 웹사이트 www.yjsunshinusa.com을 만들고 기초적이며 이순신 인성에 초점을 맞춘 단편들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게재하고, 영어권 학생들을 위해 영어판도 3편을 만들어 게재했었지요. 사진도 일부 실어 구색을 갖추어 필요에 대비했습니.

그러면 이쯤에서 이 선배님이 주도하시는 이순신 미주교육운동의 특징과 지향 목표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저의 이순신 교육운동은 이순신을 역사 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의 완성적 인격을 인성교육 자료화하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 우뚝한 인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마이너인 한국계로서는 안정된 인성과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한국계 성김 같은 인물이 많이 나와 자기 완성과 더불어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보완적 외교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 외교를 주무르는 유대계의 모델을 따르되 우리에게 강렬한 정신적 본드 역할을 하는 유대교와 같은 고유 신앙이 없으니 이 부분을 한인 모두가 이의 없이 높이 숭앙하는 충무공 이순신 정신으로 대신하자는 취지입니다.

참으로 말씀 그대로 원대한 교육운동이군요. 큰 일을 하시려면 어려움도 따르게 마련인데, 이 운동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선배님은 수십년 재미 한글·한국 교육 후원 운동을 하셔서 교육 연계 활동에는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듯 한데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미주 한인사회의 집단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환경적 현상입니다. 한말 사당수수 농장 이민세대에는 배고프고 고달퍼도 허리띠를 조여매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 대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의식주 걱정이 잘 살다보니 오히려 집단 의식은 사라지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져 버린것입니다. 일년에 외식과 여행 등 자기 만족에는 수천불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동포 집단 운동에는 백불을 내지 않습니다. 한인의 민족정기와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서울대인이 경륜과 양식으로 앞에 나서서 실천적 본을 보일 때입니다. 민족의 자부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돈에 밀려 역차별 받는 슬픈 현상을 소개 하였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는 미국 48개주에 약 7~8백 개의 한국학교, 약 7천명의 교사와, 약 6만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한인 최대 교육 협의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국의 지



박명일 (충대 69)

요즘 뒤늦게 농사일을 배우며 평생을 농부로 살다 가신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으면서도 농사일을 배운 적이 없다. 지계를 저 본 적도 없다. 그 당시엔 농촌을 하루속히 떠나 도시에 있는 일류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어머니의 나에 대한 바람이었고 나의 꿈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니까, 아니 이미 10여년 전부터 어린 시절에 농업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 무척 후회스럽게 느껴진다. 일기에 보에 따르면 어제 봄날처럼 화창하던 날씨가 오늘날은 빙점 이하로 떨어지고, 눈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농부들의 종교는 하늘이다. 하루 24시간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 잠속에서도 하늘을 꿈꾸며 사는 것이 농부들의 삶이다.

어젯밤 10시쯤 케를을 통해서 일기에보를 전해 들은 나는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 시청을 접고, 플레시와 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며칠 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혹시나 알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씨앗들에게 가든 소일들을 살핀히 덮어 주었다. 내 기억 속 어머니도 늘 그리 사셨다. 농작물들은 그녀가 난 자식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챙기시었다.

지난 수년간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꿈꾸어 오던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한 달쯤 전 이곳을 강타하고 간 시속 40마일 이상이 되는 강풍 때문이었다. 그 강풍으로 인해 전기와 물이 며칠간 끊겨 반강제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농촌의

농자천하지대본

삶은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며 낮이면 별거벗은 나무들의 하늘거리는 촛사위를 바라보며... 순간순간이 떠나고 싶지 않은 아늑한 행복과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삶을 늘 역설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었다. 행복과 즐거움 맞은 편에는 늘 불행과 실망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때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강풍이 스쳐 간 이 주 뒤 내가 지난 18년 동안 신주처럼 모시고 아꼈던 70년 이상이 되는 80피트가 넘는 블랙너트 나무를 잘라내



야만 했었다. 아침저녁으로 산새들이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다람쥐들이 아슬아슬한 서커스를 공연하며, 산새들이 둥지를 트고 모정의 사랑과 신비를 선사했던 그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어머니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순간에 빨간 카디널 새 한 마리가 비바람을 몰고 와 그 나무에 앉아 비보를 전해 주었던 운명의 전형 같은 나무, 혹시 자를 나무들이 없나 해서 매년 일감을 찾아 우리 집에 들르는 트리컷터들은 "

이 나무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람에 넘어지면 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자르기를 권한 세월도 어언 벌써 17년이 넘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리 오래된 나무를 내 손으로 차마 자를 수는 없습니다.' 하며 단호히 거절하고 했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나무를 껴안거나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재발 살아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케를과 아들의 질겁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비물인 오줌을 매일 그 나무에게 선물하곤 했었다. 그 큰 나무의 봄 기상은 다른 나무들에 비교해 아주 느렸다. 다른 나무들의 가지들 위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 때도 그는 꿈쩍하지 않고 회색 침묵만을 지키고 있기가 일수였다. 그에 더해 자주 말라가는 나무 몸통 껍질들을 개미들이 점점 먹어가고 있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슬프지만 너와 이별할 때가 온 것 같다." 사오년 전부터 나는 속으로 다짐을 하며 그 큰 나무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었다. 그러다 막상 트리컷터가 약속 날에 나타나면 이건 아니지 하



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지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미루어 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두 해 전부터 이른 봄이 되면 큰 나뭇가지들 위에 불그스레한 새 잎 봉우리들이 다른 나무들보다 더 일찍 부지런하게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한 푸르름으로 남쪽 하늘을 다시 가리게 되고, 가을이 되면 무수한 블랙너트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춘이 찾은 듯했다. 이번 강풍에도 견뎌냈다. 근처에서 있던 아들드리 두 나무, 쓰러져 나란히 그

결에 가로 누웠음에도, 무척 대견스럽고 고맙았다.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큰 나무, 나의 18년 지기 친구가. 그러나 강풍의 상처가 채 가시기 전, 며칠 후 나는 그 나무를 자르기로 결심을 하고 말았다.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들이 자주 불어오고 있는 기후의 변화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 지역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때 아닌 강풍이 자주 출현하고 있다. 언제 또, 시속 40-50 마일이 넘는 강풍들이 몰아쳐 큰 나무를 쓰러뜨릴지 모를 일이다. 만약 큰 나무가 우리 집 쪽으로 넘어지거나도 한다면 집은 대파가 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두 번째는 결에 쓰러져 누운 두 나무가 그 나무에게 줄 심리적 충격이었다. 나무들은 가리끼리 모여서 상부상조를 하며 산다. 인들의 경우 사랑으로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자신도 머지 않는 장래에 뒤따라 죽게 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내 숲속 숲의 경험으로는 나무들도 마찬가지다. 옆에 서 있는 나무들이 죽거나 쓰러지면 다른 나무들도 얼마 안 있어 덩달아 죽고 쓰러진다. 셋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연일수록 아쉬움을 남겨둔 채 적당한 때에 헤어지는 것이 좋다. 한국의 유명한 왕년 한 영화배우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겼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은 결코 근거 없는 헛소리가 아닐 것이다. 오랜 질병으로 목숨을 연명하며 가족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남기고 가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마저 사라진다. 만약 큰 나무가 쓰러져 우리 가정에 고통을 남기고 간다면 나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어찌 되겠는가? 나의 큰 나무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오랫동안 지켜보아 온 케를은 일주일 이상 나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배고 나면 당신이 슬퍼할 텐데, 만약 집에 피해가 들이닥치면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 나는 일단 결심을 하고 나면 단호하고 신숙하게 대처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케를이 시장을 보러 나간 중에 트리컷터를 불러 잘라버렸다. 트리컷터는 바로 옆 나무도 암에 걸려 밑동에 흑이 생겼다고 했다. 그 나무도 함께 잘라버렸다. 강풍을 계기로 남쪽 하늘을 가리고 있는 네 나

>> 18면으로

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시는대로 이 기사를 읽고 많은 동문들의 지원이 담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밟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순신 교육의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당면 과제 등 전모를 파악하였으니 미국 수도권 동창회장으로서 사명감을 발휘하시어 서울대-이순신-한국학교 인제 양성 후원을 모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큰 계획에 고군분투하시는데 길을 찾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실현됩니다. 힘 내세요.

이 기사에 대한 문의는 안선미 (워싱턴 동창 회장) 347-776-0304 / sunmi_ahn@yahoo.com

자체 및 교육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싶어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김구 재단과 정주영 아산재단은 재정지원을 하며, 김구와 정주영 글쓰기 경시대회가 6~7년 이어져 왔지만 우리 모두의 자부심인 이순신은 오히려 자금지원이 없어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7년 이순신 세계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해군사관학교와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의 이순신 전문학자들로부터 우수한 기고를 받았지만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영역과 불어 번역을 일부 하였을 뿐, 기타 스페인어, 중국어 번역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역량으로는 재정의 한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 선배님께서 서울대미주동창회 부회장도 역임하시어 동창회의 사정에도 비교적 이해가 있을 터이니 우리 서울대인이 큰 부담 느끼지 않으며 협조하여 성공시킬 구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자체에 비법(?)을 공개하시지요.

마침, 안선미 회장께서 명분있는 적절한 화

두를 던지시네요. 현재 이순신 미주교육은 시간이 걸리고 번잡한 기본은 모두 마치고 정비(추가 번역)와 활성화(상금 보충)만 남은 과제입니다. 웹사이트는 초중고 수준의 주제별 단편 50여 편과 어록, 문학강연집, 사진첩과 고등 대학 일반 수준의 한국 이순신 정삼금 학자들의 기고문 15편 등 약 100면에 육박하는 풍부한 자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부분은 이순신 미주교육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와 연대하여 인성과 정체성을 바로 갖춘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미 서울대인이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집단으로 약간의 가벼운 부담 (연간 100정도)과 번역(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에 재능 기부를 하여 세계화 웹사이트를 완성한다면, 재미 서울대인은 해외 동포 교육을 지원하여 가장 귀중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숫자표시로 서울대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참여 협조할 수 있는 Formula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김구 재단과 정주영 재단은 상금으로 연간 1만 5천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최고의 인기 인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상금이 연간 3만불은 있어야 됩니다. 작년 말의 제1차 NAKS 이순신 글쓰기는 워싱턴의 박용걸 동문(약대, 56)이 1천불, 이진형 동문(수의대, 54)이 5백불, 그리고 제가 나머지를 보태어 겨우 1만불로 상금과 워싱턴에서 개발 제작한 거북선 교육 모형을 부상으로 제공하여 인기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딸이 기특하게도 아버지 뒤를 이어 30년간 연 1만불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미 서울대인 1만명 중 이순신 인성교육의 가치를 인정하여 연간 1백불씩 기증할 후원 회원 100명만 모집하고 나머지 1만불은 지역별 이순신 교육본부 후원회에서 모금하면 3만불 모금은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번역 재능 기부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를 10호 활자로 30페이지 정도 분량을 번역 재능기부에 주실 동문을 구하면 됩니다. 은퇴 후의 소일거리로 훌륭한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yjsunshinusa.com을 살펴 보시면 감



김진화

<2018 BNS, Boston>

비트코인은 꺼지지 않는 ‘버블’이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버블 몇 건을 살펴보자. 수천 년간 사용되던 원자재 금이 금융상품으로 거래된 건 450년 전부터다. 금의 10년간 가격변동 추이는 비트코인의 7년간 그러운 그래프와 별반 다르지 않다.

2천년대 초엔 닷컴버블이 있었다. 절정기엔 나스닥 시가총액이 68조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명목 GDP가 105조달러였으니, 65.5%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그 버블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과 아마존을 만들었다. 북미 지역뿐 아니라 중국도 가세하며 현재는 그때보다 더 큰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버블은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다. 모든 기술혁명은 도입과 적용을 지나 전환점이 요구된다. 이때 정밀 혁신인지 구분하며 상용화 가능한 혁명의 버블이 만들어진다.

국내엔 2천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 망이 보급되며 팬티엄PC가 불티나게 팔렸다. 심지어 우체국에서도 판매할 정도였다. 당시 집집마다 최신형 PC가 왜 필요하냐는 비판도 많았지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요인이 됐다. 위 사례는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선 과잉투자와 기술이 수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블록체인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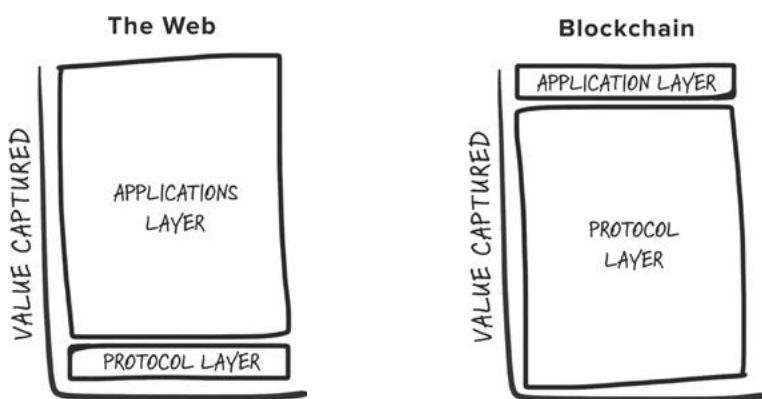
2008년은 금융위기가 발발하던 시기였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퇴출되며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다. 그러던 중 나 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9장짜리 논문을 선보인다. 거기엔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 없이도 장부가 10분에 한번씩 동기화되며 위.변조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네트워크 방식이 적혀있었다. 그게 비트코인이었다. 이후 10년 넘도록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보가 집중됐있는 환경에서 중앙관리자 없이도 존속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구글 애드센스와 이베이 등 플랫폼은 신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금융과 같다. 금융 거래를 위해 증권과 은행사가 필요하듯, 신뢰 제공자를 매개해서만 연결된다. 블록체인은 이 개념을 개인과 개인의 영역으로 옮겨왔다. 2018년 현재 암호화

페 분산장부는 10분, 혹은 17초에 한번씩 동기화되고 있으며 오픈소스이기에 다양한 체인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부동산, 콘텐츠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이유

웹 이코노미에선 응용 서비스 외 프로토콜이 필요한 게 많다. 이메일을 쓰려고 해도 프로토콜이 필요하듯, 대부분 프로토콜 위에



본질인 앱을 만든다. 기존 주식시장의 자본 시스템에선 그렇게 만들어진 수 많은 가치가 앱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형성화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앱을 만들어 비용을 만든다.

흥미롭게도 블록체인에선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토콜이 발행한 토큰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 거다. 왜냐면 이를 발행한 곳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앱보단 프로토콜의 비중이 큰 게 블록체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웹 이코노미를 전복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큰 의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팀 버너스리는 대표적 프로토콜인 'www'를 발명했지만, 부여된 가치에 비해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 이를 활용해 큰 돈을 번 건 다 른 이였다. 그 중 마크 저커버그는 프로토콜 위에 페이스북이라는 앱을 만들어 세계적인 부호가 됐다. 이처럼 웹 이코노미 아래서 프로토콜은 많은 돈을 벌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렇기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대부분 군사적 용도 등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었다. 블록체인에선 이 한계점을 보완해준다. 기술 자체에 자본이 모이는 것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다양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ICO를 진행하는 거다.

ICO, 자본시장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

동시에 ICO는 자본시장의 민주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 경영가의 도움이나 VC의 투자 없이도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4조원 가량의 ICO가 성사됐다. 근래 텔레그램이 2조원을 모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내로라하는 기업도 앞다퉈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VC 투자사도 참여하는 양상을 띠며 토큰과 투자 영역이 융합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것, 즉 '돈이 안 돼서' 개발되지 못했던 사례나 기존 주식시장에 의존했던 한계를 토큰화로 해결해보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에서 코인을 사와서 되팔거나, 기술이 아닌 투기의 영역으로 비춰지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사실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중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근저엔 '토큰화라는 트렌드가' 작금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 발전 중이다.

암호화폐의 미래

근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며 잠잠하던 시절 금궤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하나만 있었지만 지금 생태계는 풍성하다. ICO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암호화폐의 금융권 연대가 이뤄지는 추세다. 관련 분야와의 점점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각 국가간 토큰 경쟁보단 스마트게

약(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하나의 테마로 자리잡을 거다. 암호화폐,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인터넷이 결합되어 혁신을 이루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거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사례는 무엇이 있나.

프라이빗토큰은 개념 증명 작업이 한창이다. 뉴욕의 부동산자금조달 회사인 R3 Funding, 나스닥의 링크 프로젝트, 삼성SDS 등 몇몇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실험 중이다. 아쉽게도 아직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진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실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더리움과 스템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향후 등장할 프로젝트의 자본 시장이 조성되는 중이다.

하지만 프라이빗토큰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못 할 거라 본다. 기존 것을 효율화하고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할 것이라 예상된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보안기술인가.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반대한다. 그 의미에 갇혀 게임 체인저 역할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안기술 보다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접근으로 봐야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수익모델을 생각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사회에서 수익모델은 다양화될 수 있다. 블록체인 관련 컨설팅 조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당장의 설계보다 업계 지식을 쌓아둬야 운영에 유리할 거라 본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분 탈중앙화 정도에 그쳐있다. 데이터 수집 주체처리부터 의문이다.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P2P 음악파일 공유 플랫폼의 역사를 보자. 처음 출시됐을 당시의 냅스터는 100% P2P가 아니었다. 국내의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였다. '비트토크트'가 나오기 전까지 그랬다. 일련의 상황을 겪으며 얻은 시사점이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도 한계를 극복해 진정한 탈중앙화를 향해갈 거라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다. 암호화폐는 이 자체를 위한 자본을 보유하는 프로토콜이기에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실험과 이론이 다양하게 나올 거라 예상된다. 100% 탈중앙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거다.

은 그녀가 난 자식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애끼고 챙기시었다.

지난 수년간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꿈꾸어오던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한 달쯤 전 이곳을 강타하고 간 지속 40마일 이상이 되는 강풍 때문이었다. 그 강풍으로 인해 전기와 물이 며칠간 끊겨 반강제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농촌의

들의 삶이다.

어젯밤 10시쯤 케를을 통해서 일기에보를 전해 들은 나는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 시청을 접고, 플래시와 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며칠 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훑시나 열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씨앗들에게 가든 소일들을 살핀히 덮여 주었다. 내 기억 속 어머니도 늘 그리 사셨다. 농작물들



이정수 (공대 71)

강기동 박사와 한국 반도체, 그리고 대한민국

동창회보 2018년 2월호, 강기동 박사의
"나의 평생을 바친 한국 반도체"를 읽고

강기동 박사는 개척자이다.

대학 시절 아마추어 무선 연맹 (Korean Amateur Radio League, KARL)을 창설했다. 이때의 경험으로부터 강기동 박사 당시 깨서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반도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석박사 유학 시절, 당시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하여 총 책임을 맡고, 이로부터 13년만에 한국반도체(株)를 설립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앞장서 용감히 걸어간 선구자며, 선각자이다. 그 시절 강기동 박사가 뿌린 씨앗이 자라 삼성과 SK 반도체로 대표되는 거목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그 열매를 제공하고 있다. 그를 세계 첨단 과학 기술분야의 콜럼버스로 비유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강 박사의 기술은 냉전과 핵전쟁의 위험이 커져가던 시절 안보 위기로부터 미국을 구했다. 미국의 Minuteman II 를 지휘하는 사령부의 컴퓨터에 강 박사가 개발한 특정 IC 와 Transistor 가 탑재되어 있었기에 소련의 핵공포를 견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그가 개발하여 전수한 당시 최신 기술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기반하여 IT 강국이 되었고, 이는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강기동 박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몸소 실천한 진정한 애국자이다. 그가 못다 이룬 꿈은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 후,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 평균 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로 올라가는데 가장 오래 걸린 나라라는 불명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의 산업 성장 모델은 Fast follower이지 First Mover 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까지 미국과 일본의 뒤를 열심히 따라 왔다. 그러나 Fast follower는 결코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는 First Mover 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강기동 박사가 보유했던 당시 최신기술이자 오늘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CMOS Technology 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First mover로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강 박사는 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이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당신께서 설립하셨던 한국반도체(株)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이

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2018년 1월 9일 한국 경제 고재연 기자는 "53조 6000억 원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은 지난 해 최고의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아마존의 연간 추정 이익(3조 9400억원)의 14배 수준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39조 3500억원), 페이스북(20조 6800억원) 보다도 훨씬 많았다. 영업이익의 50조를 넘는 기업은 삼성과 애플뿐이다. 삼성은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로 인텔 "24년 아성"을 깨뜨렸다." 라고 쓰고 있다.

필자는 강기동 박사를 1974년 처음 만났다. 필자는 당시 입사 응시생이었으며, 강 박사는 한국반도체의 사장이자 면접관이였다. 그날의 에피소드는 필자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몇 년 전, 오랜만에 찾아 보였을 때, 당시 필자를 뽑은 이유를 "자네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필자는 삼성과 연을 맺고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안과 밖에서 삼성의 발전에 함께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강기동 박사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끌어올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쩌면 일본이나 미국 보다도 앞장서 있을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마치 Steve Jobs가 자기가 설립했던 회사에서 쫓겨났다 다시 돌아와 망해가던 Apple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되살려 놓았듯이 말이다. 다음 글은 테네시에 사는 필자의 사촌동생이 강 박사의 글을 읽고난 후, 보내온 소감이다.

"보내주신 글을 보고난 저의 첫마디는 "와우... 멋지다" 였습니다. 일단 저는 기계, 전자, 전기 등 공과쪽이랑은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Smart phone을 쓰기는 하지만 겨우 전화 통화, 사진 찍기, 문자 주고 받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강기동 박사님,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뚝 선 경제강국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가 가장 큰 분 중 한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의 전신인 한국 반도체의 주역이사라면, 지금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하신 장본인입니다. 저 역시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인 Television부터 Computer, 휴대 전화기까지 모두 삼성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미국 친구들도 삼성 휴대 전화기에 낚장고, TV, 등 많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강 박사님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강 박사님의 성함을 오빠를 통해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석 (의대 62)

빙하수(氷河水)를 마시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빙하가 녹아내리며 만들어낸 대지의 운명과도 같다
기본 언어言語와 인지력認知力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빙하가 지나간 땅에 수목이 우거지고 생명들이 번창하며 살다가
산불이 붙어 덩불에 썩어 다 타버리는 것과도 같다

수은, 납,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불순물이 쌓이고
순조로운 신진대사가 차단되어 뇌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단풍이 물들고 오곡이 추수되던 마을에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살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빙하가 녹아내려 아름다운 폭포수와 강을 이루고
그 물살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넓고 비옥한 초원草原에서
목동이 피리를 불고 소와 양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수 있었던
이 소중한 시간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슬픈 현상과도 같다

뇌로 가는 혈관에 적혈구의 운송이 막히고 마그네슘, 징크, 테스토스테론, 프로제스테론, 콜레스테롤, 갑상선 기능의 밸런스가 기울고
독소가 되어버린 당분의 대사체가 뇌의 기능을 빼앗아가는 치매(Alzheimer's Disease)
이 슬픈 현상을 막으려고 햇빛에 녹아 졸졸 흐르는 차디찬 빙하수를
우리는 이렇게 겁에 떠서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늦게나마 이해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연을 보존하고 공기를 다시 맑게 하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하고 탄산가스, 독가스의 방출을 줄여서
수십만 년 간직하던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의 젊음을 다시 찾고자 함이다

그래서 빙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던 별들의 이름도 다시 찾고
거울 속의 얼굴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젊은 날의 기억,
이 소중한 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영하 20도의 로키산정(the Rockies)에서 빙하수를 나누어 마시며
장갑 낀 손을 서로 잡고 차디찬 얼음 위를 걸어보는 것이다

* 환경 오염에 따른 많은 질병의 발생과 유전에 중요한
세포의 핵(노론자) 밖의 세포질(원자) 속에 있는 에너지의 발전소

한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 국제 PEN 한국본부 회원

사람은 어느 때와 어느 장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강 박사님은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 현명하신 부모님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교육과 타고난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기업경쟁의 암투속에서 희생양이 되신듯 합니다. 대기업의 약육강식에 의한 먹이사슬에서 지신 것 같아요. 한 세대를 앞서 가실 만큼 똑똑하고 능력은 뛰어나셨지만, 너무 순진?하신덕에 밀려나신듯 합니다.

이제라도 정말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특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듯 합니다. 또한 강기동 박사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알리는 일이 서울

대 동창회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선 한자가 아닌 한글로된 책이라면 더 쉽게 읽혀질거란 생각입니다. 강기동 박사님으로 인해 한국이 경제대국이란 이름아래 풍족히 살아가고 있지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체님께 이 글을 쓴 듯하여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영 Hyeyoung Lee, Tennessee"

끝으로 강기동 박사의 노고와 희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 글을 읽어 주신 독자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최은관 (상대 64)

<역사 이야기>

역사에서 유명한 돈 이야기

옛 성현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성현이라도 그들이 살던 시대에 경제 활동을 해야 했고, 돈 이야기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돈 중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돈을 살펴보자. 기원전 5-6000년 전부터 인류는 강 유역에 정착하여 농사를 시작하였다. 농업은 사냥이나 먹을 것을 땅에서 줍는 것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강 유역에 모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마찰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셈 족속의 사르곤(Sargon)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기원전 2300년 경), 다시 셈 족속이 바빌론 제국을 세운 뒤에 함무라비(Hammurab) 법전이(기원전 1750년 경) 만들어졌다. 이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기초적 개념이 담겨 있고, 이것은 후일에 유대인들도 빌려간 개념이다. 한 반도에도 기자조선 시대에 팔조법금이 있었다고 한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물을 교환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이 시작되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해외 무역은 처음에 말 없는 물을 교환이었다. 지금 레바논 지역에 살던 페니키아인(Phoenicians)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의 여러 해안에 배를 대고 방어가 없으면 사람들을 생포하여 노예로 만들어 팔아먹었고, 방어가 잘 되어 있으면, 그들과 물을 교환으로 장사하였다.

물을 교환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원하는 물건 값과 수량이 같아야 하니까, 참으로 불편한 교환 방법이었다. 일반 상품을 교환의 매체로 써 보았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부피가 많거나 곧 부패하여 쌓아놓을 수 없었다. 상인들은 썩거나 산화하지 않고 가볍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돈의 필요를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商 나라 때부터 무늬개오지(cowry, 카우리 조개)가 돈으로 쓰였다. 조개



고, 조개를 여러 번 사용하여 상치가 없으면(戈+戈), 천(賤)하게 되어 값이 떨어진다.

1. 금속 화폐의 시작



기원전 550년 경에 아나톨리아 (Anatolia,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리디아(Lydia) 왕국의 임금 크로이소스(Croesus)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금전을 찍어냈다. 이 임금은 팩토루스(Pactolus) 강에서 자연 상태로 나는 일렉트럼(electrum)으로 금전을 찍어냈다. 이것은 금과 은이 대체로 절반씩 섞인 물질이었고, 이 금전은 금과 은의 중간 색이었으므로 이를 white gold로 불렀다. (白金이 아니다)

다른 금광에서도 금전을 찍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한 금전의 순도를 사람들이当场 확인하거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금전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크로이소스의 금전은 표준화되어 그 순도와 양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금전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지난 20세기에도 금속 화폐의 기본 요건은 신용이었다. 금의 순도를 믿을 수 있어야, 그 금화가 널리 통용되는 것이다. 약은 사람들이 속에 값싼 납이나 철을 넣고 겉에만 도금을 하여 가짜 금화를 만들었지만, 대중은 손쉽게 가짜 돈을 구별할 수 있었다. 금은 무른 금속이므로 금화를 이가 물어서 자국이 나면 순금이고 이가 아프면 가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사람들이 판별하였다. 그래서 진짜 금화를 시장에서 주고 받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뜯겨서 곧 모양이 일그러졌고, 새로 주조한 금돈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었다.

시지커스(Cyzicus) 마을에서 주조한 스테이타(staten)는 그리스어로 무게라는 뜻. 마찬가지로, 영국의 파운드도 무게 단위이다. 금과 은을 무게를 달아서 지불했기 때문에, 무게 단위가 돈의 이름이 되었다.

2. 그리스의 금은전 발행

기원전 330년에 페르세폴리스(Persepolis)는 태왕 아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한다. 여기서 알렉산더의 군대가 5:1로 열세였는데도, 이 도시를 정복했다. 그의 군대가 여기서 약탈해 간 금과 은은 120,000 달란트였는데, 이 중에 금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Susa)와 엑바타나(Ecbatana)에서 약

탈한 것까지 포함하면 200,000 달란트가 넘었다. 이중에 금이 10분의 1이었다고 가정하면, 1 달란트가 약 1000 트로이 온스(Troy ounce)이니까, 1온스에 1천 달란로 계산해도,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결과로, 오늘날의 시가로 최소한 약 2백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 은값은 금값의 1/4이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그리스로 가져가서 풀어놓았으니, 그리스뿐 아니라 그리스와 무역을 하던 나라들의 경제가 크게 부양되었다. 누구나 그리스와 무역하기 위하여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스어는 지중해 세계에서 공통어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기원전 325년 경에 알렉산더가 인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려고 주조한 포러스 메달리온 은전인데, 알렉산더가 전투에 수고한 장군들에게 나누어준 듯하다. 포러스(Porus)는 힌두 임금의 이름. 알렉산더는 기원전 326년에 히다스페스(Hydaspes) 강둑에서 파우라바(Paurava) 왕국의 임금 포러스의 군대와 싸웠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포러스의 군대와 비해서 3:1로 열세였으나 우수한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다. 알렉산더는 그의 이름으로 다스리라고 포러스를 임금으로 세우고, 두 도시를 세웠다. 하나는 니케아(Nicaea)요, 다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부시팔루스(Alexandria Bucephalus)였다. 이 전투 이후에, 알렉산더는 장군들의 청을 들어 바빌론으로 돌아갔다.

이 메달리온(Medallion)에는 알렉산더가 왼손에는 (희미하지만) 임금의 홀(笏)을 들고 있고, 바른 손에는 벼락(제우스의 상징)을 쥐고 있다. 승리의 여신(Victory)이 화환을 알렉산더의 머리에 씌운다. 뒷면에는 말을 탄 알렉산더가 코끼리를 탄 포러스를 공격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메달리온은 알렉산더가 죽기 얼마 전에 (기원전 325년 경) 주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3. 케자의 은전과 금전

예수님이 생애의 끝 무렵에, 어느 날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산헤드린(유대인의 최고 법정)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체면을 깎으려고 대표를 보내어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누가복음 20장 (22-2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내민 은전은 어떻게

게 생겼을까? 그 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 있었을까?



이것은 케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은전(대영 박물관)의 사진이다.

티베리우스(Tiberius)는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제위에 있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나 티베리우스가 찍은 데나리온 은전은 예수의 시절에 많이 통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커스 안토니는 황제가 된 적이 없으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남은 것은 케자가 살아 있을 때 주조된 이 데나리온과, 아우구스투스 때에 주조된 데나리온이다.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 서기 41-54년)는 제위에 오르면서 “케자”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택했고, 그 이후로 케자라는 칭호가 로마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루어 권위의 상징으로 쓰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절에 케자는 이미 죽었고,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죽었으며,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다. 티베리우스 이후에 “케자”라는 칭호가 쓰였으니,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케자”는 줄리우스 케자 본인을 의미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케자는 또한 살아 있는 동안에 초상이 은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 은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보통 노동자의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50 - 100달러에 해당할 것이다.

4. 디오클레시안(Diocletian)의 금메달

디오클레시안은 서기 284년부터 305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다. 제국의 경계가 복잡해지자 막시미안(Maximian)을 副帝(케자)로 임명했다가 다시 그를 正帝(Augustus)로 승격시켰다. 293년부터 디오클레시안은 사두 정치(tetrarchy)를 시작했는데, 제국을 둘로 나누어 동방은 자기가 맡고 밑에는 갈레리우스(Galerius)를 부제로 두었다. 서방의 정제는 막시미안이었고, 그는 콘스탄티우스(Constantius, 콘스탄틴의 아버지)를 부제로 두었다.

디오클레시안은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갈레리우스가 기독교 신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을 주장했어도, 디오클레시안은 피흘리지 않는 온건한 박해를 주장했다. 즉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김현영 (수의 58)

[종교]

과테말라 선교와 접목된 새마을 운동

우리 부부는 지난 2018년 3월 6일 워싱턴 제일교회 정재호 목사님 팀, 그리고 과테말라 산칼로스 대학교 교방 시청에서 합류한 현지인 등 12명이 시청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선교지인 마야 인디안 원주민 마을인 차마 (Chama)를 방문하였습니다. 차마 마을은 과테말라 수도 국제공항에서 내려 북쪽으로 차로 포장도로 6시간 그리고 아주 험악한 비포장도로를 2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하는 아열대 원시림이 그대로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전기, 상수도 등 문화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2,000여명의 농민이 사는 큰 마을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하나씩 있고 간이 보건소도 있는 마을입니다.

그때 (2015) 하나님께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농촌개발 전문인 사역팀을 동역자(partnership)로 새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중 팀장인 장학근 장로님은 미국정부에서 36년간 지역개발 전문가로 새마을운동도 잘 알고 계시어 그분께서 대학과 시청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영상과 세미나를 통해

1.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키게 된 동기

필자는 그간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교방)의 초빙교수로서 미국 주립대학의 Extension program을 도입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가난한 원주민 마을에 젓염소를 분양하며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마을을 방문, 농민들에게 젓염소 사육과 치즈 만드는 기술 등을 교육해 왔습니다. 동시에 현지인 Vicky 협력목사와 함께 젓염소 분양마을에서 교회도 개척 하면서 총체적 농촌 개발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과테말라 같은 미개발 국가의 농촌 지역 개발은 미국적인 것보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 미국 정부 지역개발 전문가를 동역자로 보내주시다

집회를 금하는 것으로 그쳤다. 311년에 갈레리우스 부제가 마음을 바꾸어 기독교 박해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다음에 313년 서방을 다스리던 콘스탄틴 대제와 동방을 다스리던 리키니우스(Licinius)가 밀란에서 만나서 기독교를 국가에서 인정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를 밀란 칙령이라고 한다. 이후 380년에 기독교는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디오클레시안의 금메달이다. 초기

에 기독교도를 박해한 것 외에, 디오클레시안은 온건하고 현명한 정치가였던 듯하다. 정치적 권력에 그다지 애착이 있지 않았던 듯하다. 서기 305년에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는 디오클레시안은 달마시아(지금 크로아티아 지역) 해변에 궁전을 짓고 채소밭을 가꾸며 살았다고 한다.



소개 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3. 주과테말라 한국대사 대학(교방) 초청 새마을 운동 강연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과테말라에서 구체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2016년 3월 주과테말라 한국 대사님 (이운호, 경제전문가)을 초청 대학에서는 본부에서 특별히 내방한 총장등 대학 고위급 교수들과 지역정부 시장, 대학교수, 학생 등 제한된 초청 청중들을 향해 새마을 운동을 소개하며 강연을 하여 주셨습니다. 대학당국과 시당국에서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4. 과테말라 교수 한국정부초청 새마을 운동 훈련

2016년 4월 한국 구미에 있는 새마을 세계화재단을 방문하여 과테말라 교수들의 새마을 운동 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이지하 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그해 12월에 과테말라 산칼로스대 교방 캠퍼스 부총장, 교방 시의원, 대학생 등 3명이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2주간 새마을운동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5. 새마을 운동 차마(Chama)에서 시작

2017년 3월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세명이 중심이 되어 교방 시청부와 산칼로스 국립대(교방 캠퍼스)와 필자등 세 단체가 MOU를 맺어 공동으로 함께 시청부에서 선정해 준 마야 원주민 마을인 차마(Chama)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6. 과테말라 교수 4명 제2차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훈련

2017년도에 대학교수 3명 지방정부 공무원 1명 등 4명이 2017년 11월에 2주간 한국정부 초청으로 새마을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7. Saemaul Workshop 개최

2018년 3월 9일 대학에서 새마을 운동 훈련자들 (7명)을 주축으로 차마 마을 새마을 운동을 위한 “Saemaul Workshop”을 개최 하였습니다. 신학(정재호목사), 의학, 축산학, 사회학, 지역개발 등 진지한 주제발표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Saemaul Conference (새마을 컨퍼런스)로 확대하여 교수들과 학생들도 참여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Saemaul Conference가 계속 됨으로 장기적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8. 차마마을에 역사적인 장마당이 처음으로 열린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 되면서 제일 먼저 변한 일이 시청부가 차마마을로 들어가는 아주 험한 길10Km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새로 생기고 농산물 판매 장마당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콘도시트럭을 가진 독점 업자에게 싣값으로 팔던 농산물을 제값으로 판매 하고 문화생활품도 싸게 구입하게 되므로 원시적 생활에서 최소한 문화생활로 전환 되는 Turning point를 맞게된 것입니다.

또한 그간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차마마을 방문 교육 (University Extension program)을 실시함으로 격리된 마을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계기로 된 것입니다. 장차 훌륭한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 머리가 우수한 중학생 5명에게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9. 합의된 앞으로 할 일

- a. 중학교에서 성경교육등 Campus ministry
- b. 차마마을에는 이미 교회가 있어 교회개척은 하지않고 계절적으로 현지목사와 지도자 훈련
- c. 중학교에서 여름 영어성경 camp
- d. 중학교 건물 개축 (시청, 마을, LGM공동 투자)
- e. 장학사역 확대 (교방시에 있는 국립농업고등학교로 유학 앞선, MOU 진행중)
- f. 대학 extension program으로 젓염소등 농업교육, 공동보건교육

이러한 모든 것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훈련을 받고 돌아온 후 생긴 일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과테말라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사역, 총체적 사역에 잘 접목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이덕주 선교사 드림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초빙교수
2018년 3월 19일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해서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수웅 (의대 55)

B형 간염과 간암의 퇴치운동

그 첫 50년 동안의 실적

그동안 우리 지구촌에는 여러 질병이 기록하였지만 이 'B형간염'만큼 조직적으로 퇴치된 사례는 대단히 드물다. 우선 이 퇴치운동은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사회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한인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퇴치운동이 시작하기 전 수십 세기동안 치료할 수 없었던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만성 B형 간염과 그로인해 유발하는 간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지난 50년은 우리 교포들에게 큰 성취의 반세기였다.

우리가 의과대학 졸업학년에 올라오자마자 4.19학생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해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장면정권을 퇴진시켰다. 이런 격동기에도 서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병동은 역시 간경변증 및 간암 환자가 수십명씩 입원실을 채우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병의 원인균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저 풍토병인 줄 알고 주로 대증요법만 하고있어 많은 환자들이 황달끼에 팔다리는 말라들어서고 배만 복수로 터질 듯이 불러올라와 신음하고 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서연하다. 환자의 대부분이 50세 전후의 집안 어른들이 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른을 집으로 모셔가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했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객사를 금기시하는 관습이 있었고, 병원에서 숨지는 것도 객사로 간주하고 있었다. 많은 의학도들이 이렇게 집안 어른들을 앓아 가는 풍토병에 도전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 이르러 여기 필라델피아 암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볼럼버그 (Baruch Blumberg) 박사가 'B형 간염의 항원'을 발견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정체를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1965년을 B형 간염과 간암 퇴치운동(Campaign)의 원년으로 간주한다.

곧이어 우리 서울 의대 동문인 한혜원 교수가 볼럼버그 박사와 1971년부터 17년동안 일하면서 서울 대학 병원의 김정용 박사와 제휴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HBV)가 간암 및 간경변증의 원인균임을 규명하였다. 대단히 획기적인 업적이다. 그후 한교수는 곧 '간질환예방센터'를 창설하여 B형 간염과 그로 인해 유발한 간암의 임상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필자 자신이 '한미간협회'를 조직하여 이 퇴치운동에 처음부터 동참하였다.

예방접종 생성

1980년 초반에 이 B형 간염을 예방하는 백신(예방접종)이 생성되어 B형 간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의 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관련계로 세계보건국(WHO)에서 이 백신을 '인류역사상 최초의 암예방접종(The First Cancer Vaccine)'으로 명명하였다. 이런 공로로 볼럼버그 박사는 1976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후 많은 의학도들의 노력으로 만성B형 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그 치료제가 발굴되기 시작하여 점차로 효력이 월등한 경구치료제가 출현하여 만성B형 간염 및 간경변증의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간암의 발생율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주말마다 한인교회를 찾아서

우리 팀은 1983년부터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예방접종을 하기위하여 우선 혈액검사를 하여 B형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되었는지를 알아내야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기점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한인 교회, 한인회 및 한인실업인 단체들을 찾아 다니며 강연회를 열고, B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였다. 필라델피아의 근교의 교회를 찾을 때는 거의 매 일요일마다 다녔고, 멀리 있는 교회에는 매격주 간격으로 찾아다녔다. 예배가 끝난 후 한혜원 교수가 잠깐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교회는 200여 명, 어떤곳에서는 300여 명의 채혈을하고 '간질환 예방센터'에서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각 피검자에게 통보

하여 B형바이러스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였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코네티컷에서 남쪽으로 플로리다에 이르는 10여개 주에 사는 교포들을 찾아다녔다. 곧 소문이 나서 중국인 및 베트남인 교회까지 다녀야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약 3만여명의 피검자에서 약 5,000명의 보건자를 색출하고 그들을 따로 여기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토마스 제퍼슨 대학병원에서 계속 진료하면서 그 동안 중요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다.

만성B형 간염의 세계적 분포

만성B형간염의 분포를 보면, 지구촌의 3억 5천만의 '만성B형 간염' 환자중 그 대부분(75%)이 아시아에 살고 있다. 중국에 1억 2천만, 인도에 4천만, 인도네시아에 천3백만, 필리핀에 8백만, 일본에 3백7십만, 남한에 2백8십만의 보건자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자, 한혜원 교수가 아세아 및 중미의 10개국에 가서 강의하고 다녔고, 또 미국내에서도 LA, 쉬카고, 달라스, 보스턴, 아틀란타 등지에 가서 계몽강연을 시행하였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보건자 수가 2백만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75%)이 아시아에서 온 이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시아 이민들은 모두 B형 간염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 B형 간염은 감염되고 나서 오래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주로 대증요법만 하고있어 많은 환자들이 황달끼에 팔다리는 말라들어서고 배만 복수로 터질 듯이 불러올라와 신음하고 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서연하다. 환자의 대부분이 50세 전후의 집안 어른들이 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른을 집으로 모셔가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했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객사를 금기시하는 관습이 있었고, 병원에서 숨지는 것도 객사로 간주하고 있었다. 많은 의학도들이 이렇게 집안 어른들을 앓아 가는 풍토병에 도전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

모들은 반드시 B형 간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신하고 있는 동안 늘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신생아는 전문의 지시대로 치료 받아야한다.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선교하는 동문들은 만성B형 간염의 세계적 분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세아 대륙 이외에도 아프리카, 남미 (페루, 부라질), 동유럽, 그린랜드, 알라스카 등이 만성B형 간염이 만연한 지역들이다. 이런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반드시 B형 간염 검사를 받아야하며 보건자지도 않고 면역도 없으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겠다. 예방접종은 6개월 내에 3번 받아야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A 형과 B형을 합친 예방주사 (Twinrix)를 맞아도 무방하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

지난 20여년 동안 의학 연구진의 간단없는 노력으로 만성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암의 치료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즉 하루에 한알씩 복용하는 효력있는 약제들이 나와서 만성B형 간염 및 간경변증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간암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암을 지연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혹시 간암이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초기에 발견하고 간암의 크기가 작으면 치료의 성공율이 대단히 높다.

한국에서는 흔히 간암은 치료할 수 없다고들 손사레치는데 이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저지하는 항바이러스제제의 출현으로 환자체내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수치를 줄임으로 해서 간암 치료를 국소치료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간 이식같은 거창한 수술을 거치지 않고 간암의 국소치료와 항 바이러스제의 장기 복용으로 자기의 간을 계속 살려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술에 의한 간암의 조기진단이 관건이다.

인체내에서 간의 역할

간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면, 간은 인체의 신진대사의 중심이며 따라서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며 인체에 들어오는 독해물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해서 독성물질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그런 관계로 한방약제나 여러가지 성분을 모르는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였을때 제일 먼저 손상을 입는 기관이 간이다. 그러므로 연방약제관리국의 검증없이 시판되는 약물들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자연산 이라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화학공장으로 당, 지방 및 단백질을 분해, 결합, 재생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간조직이 많이 손상되면 간 부전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간 조직속에 신경이 없는 관계로 간속에서 암이 크게 자라고 있어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간은 재생능력이 커서 어느정도 손상을 보아도 증상이 거의 없는 관계로 보통 환자들은 간 질환의 말기에 이르러 병원을 찾게 된다. 이미 간을 회생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이다.

간암발생기전에 관한 연구

B형간염바이러스(HBV)와 간암발생의 역학적 연구조사는 대만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1981년 비즐리(Palmer Beasley, M. D)가 2만 2천명의 대만사람들의 혈청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검사한 결과 보건자에서 비보건자에 비해 63배나 높은 간암발생율을 보았고, 그 후 2006년 대만에서 나온 또 다른 보고를 보면 간암발생율이 HBV의 혈액수치가 높을수록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두 보고가 상기한 한혜원 교수팀이 1982년에 발표한 역학현상 즉 'HBV가 간암의 원인균'이라는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HBV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는 기전은 여러가지로 고려되고 있다. 즉 바이러스자체, 바이러스로 인한 간세포의 염증, 간조직의 염증,괴사, 재생, 섬유조직화, 바이러스의 핵산과 간세포핵의 병합, HBV의 X항원의 발암작용 등 여러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출현

치료제는 1992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주사약 인터페론(Interferon)이 나왔다. 상당한 흉분과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동양이나 한국에서 많이 보는 출생시부터 감염된 환자에서는 별로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 또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들의 고생이 보통 아니었다.

1998년 비로써 B형간염의 첫번 경구용 약제로 라미부딘 (Lamivudine)이 나왔다. 기가막힌 사실은1983년 미국에서 많은 젊은 남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던 에이즈(AIDS)가 만연하고 있을 당시 에이즈약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중에 HBV에 동시감염 되어있는 환자들이 있었다. 이 환자들에게 라미부딘 을 투여하던 중 에이즈 바이러스만 아니라 HBV까지 감소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HBV만 가지고 있

는 환자들에게 라미부딘을 투여하였더니 HBV의 증식이 줄면서 간염이 나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연구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참가하여 크게 혜택받았다.

이렇게 되어서1998년 마침내 라미부딘이 HBV의 첫번 항바이러스제로 승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약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만성B형간염환자들이 효과를 보았다. 라미부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라미부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HBV로 인한 간암의 발생률이 많이 감소된다는 연구발표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실 세계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65-80%가 HBV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는 기전은 여러가지로 고려되고 있다. 즉 바이러스자체, 바이러스로 인한 간세포의 염증, 간조직의 염증,괴사, 재생, 섬유조직화, 바이러스의 핵산과 간세포핵의 병합, HBV의 X항원의 발암작용 등 여러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다.

1998년의 라미부딘 출현이후로 더 많은 항바이러스제가 나왔다. 2002년에는 아데포뷰어(Adefovir, 약품명 헵세라), 2005년에는 엔테카뷰어(Entecavir, 약품명 베라클루드), 2006년에 텔비부딘(Telbivudine,약품명 타이지카), 2008년에는 트노포뷰어(Tenofovir, 약품명 비부리아드)가 나와 전부 5가지의 항바이러스제가 현재 나와 있다. 한국에는 또 하나의 항바이러스제 클레부딘(Clevudine)도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트노포뷰어 알레페나마이드(Tenofovir Aafenamide)가 나왔다

지난 15년간의 이들 약제의 치료로 현재는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면 간염을 치유하고, 간경변으로의 진전을 막고 간암으로의 발전을 차단하든지 지연시킬 수 있다. 더욱 기쁜 소식은 이미 간암으로 진전된 상태로 병원에 온 환자라도 작은 암이면 이미 생긴 간암은 국소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항 바이러스제를 투약하여 암의 재발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간암을 어느정도 저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통계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나오고 미국에서는 우리 제퍼슨팀의 발표가 처음이었다.

항바이러스제제와 간암 치료

한혜원 교수의 경험을 들기로 한다. 벌써 옛날이 된1980년대 B형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이미 4cm의 간암까지 발전시킨 상태로 내원하였다. 곧 국소 치료 (고주파가열치료)로 이미 생긴 간암은 완전히 처리하였다. 그러나 B형간염을 앓고 있던 이 환자의 간조직속에는 HBV가 계속 증식하며 간암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 당시에는 HBV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간암치료 후 3개월쯤 지나로 인한 것이 그 당시의 사정이 었다. 후에 나온 항바이러스제 들도 같은 결과를 낸다는 발표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가 생기고 난 후에 같은 상태의 간암을 가지고 온 환자들은 내원하자 즉시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이미 생긴 간암은 국소치료, 혈관 색전술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고주파가열치료(Radiofrequency Ablation), 마이크로웨이브 치료(Microwave ablation), 외과적출 (Resection) 등으로 치료하고 남은 간의 HBV의 증식을 계속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관계로 나머지 간에서 새로 간암이 발생한다든지, 또 이미 치료한 자리에서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훨씬 적어졌다.

최근 제퍼슨대학병원에서 간암치료를 국소 치료한 후 항바이러스치료로 15년간 생존한 환자를 비롯하여 여러간암환자들의 장기 생존률을 미국에서는 처음 나온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비슷한 나 훨씬 짧은 기간의 관찰을 발표하였다.

15년 이상의 생존률은 한혜원 교수가 발표한 것이 세계적인 기록이다. 지금 그 환자들은 계속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므로 정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갈이면 간장이식을 받아야 할환자들이었다. 이런 결과로 HBV로 인한 환자들(심한 간경화, 간암)의 간장이식 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간암의 원천적 예방은 B형간염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B형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이미 간경변까지 된 환자는 항바이러스치료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암환자에 대해서는 위에 이미 설명 하였다.

HBV 치료의 전망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HBV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들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根治는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원조(cccDNA, covalently closed circular DNA)는 환자의 간세포의 핵속에 있고 무중식상태이기 때문에 항바이스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이때까지 치료가 힘들어서 고생하던 C형간염을 근치할 수 있게 된 최근의 성공과 대조가 되고 있다. 이 기회에 용기를 얻은 제약회사들과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B형간염도 근치할 수 있는 방도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HBV의根治의 날이 제법 크게 전망된다.

(한혜원 교수는 간질환 전문의로서 현재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 내과교수로 근무하며, 동대학병원의 '간질환예방센터'의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7. 7 ~ 2018.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7. 7 ~ 2018.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문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소식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서울대학교에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모금기관입니다.

2017년 미주재단 주요 기금 소개

선한 인재 장학금

경제적 장벽이 학생들의 꿈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시작한 서울대학교의 장학 사업입니다. 약 850명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30만 원(300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원(300만 달러)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주중광 허지영 약학대학 20동 건축 및 시설확충 기금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대 66) 동문 부부가 모교의 약학대학이 세계 최고 연구 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약학대학 건축 및 시설확충 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김현 병리학 기금

김현 박사(의대 60)가 모교 의과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며 의대 병리학 기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2017년 미주재단 기부자 (USD)

2017. 1. 1 ~ 12. 31. 약정기준

주중광 · 허지영 (약대 · 문리대)	2,065,550	이전구 (농대)	2,000	권기현 (사대)	100
김현 (의대)	500,000	최정웅 (공대)	1,200	김동광 (공대)	100
익명	300,000	이의인 (공대)	1,000	김병연 (공대)	100
오세경 (약대)	60,000	임종식 (의대)	1,000	박상원 (음대)	100
신동국 (수의대)	10,000	Cheryl & Stephen Shapiro	500	성주경 (상대)	100
지흥민 (수의대)	10,000	오인환 (문리대)	500	안선미 (농대)	100
서중민 (공대)	3,000	이상강 (의대)	500	정원자 (농대)	100
익명 (수의대)	3,000	박태호 (치대)	300	한재은 (의대)	100
조무상 (법대)	2,520	김용구 (공대)	200	한정민 (농대)	100
윤상래 (수의대)	2,100	유시영 (문리대)	200	함은선 (음대)	100
손재욱 (가정대)	2,000	이강원 (공대)	200	허유선 (가정대)	100
신응남 (농대)	2,000	이성숙 (가정대)	200		

세제혜택 및 기부안내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연방국세청(IRS)의 면세승인 비영리 기관(501-C-3)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면서 서울대학교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유증 등에 대한 기부문의를 상담해 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lcpagroup.com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435-1974 E-mail : america@snu.ac.kr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47,347.11 (11/29) 6,511.97 총동창회 보조금 3,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 업소록 광고비 강호석 (상대 81)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240 남옥현 (경영 84) 480 박중호 (의대 79) 240 서동영 (사대 60) 240 신동국 (수의 76) 24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엄동해 (농대 74) 240 윤세웅 (의대) 240 이경림 (상대 64) 48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종모 (간호 69)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240 주기록 (수의 68) 240 지흥민 (수의 61) 240 김일영 (의대 65) 240 광고비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DUO Info. (12/8) 400 DUO Info. (1/9) 400 DUO Info. (2/8) 400 DUO Info. web (2/23) 500 DUO Info. (4/2) 400 JayoneFood (1/22) 1,800 KISS (1/17) 3,0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김승호 (공대 71) 4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서울메디칼 (3/15) 1,000 손재욱 (가정 77) 500 신응남 (농대 70) 1,200 심완섭 (의대 67) 1,800 한남체인(3/15) 1,000 나눔 김창화 (미대 65) 25 황선희 (공대 74) 100 모교발전기금 권기현 (사대 53) 1,000 심상은 (상대 54) 25 유재환 (상대 67) 125 윤우용 (공대 63) 500 오인환 (문리 63) 200 임종식 (의대 51) 1,0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서동영 (사대 60)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윤상래 (수의 62) 6,000 이병준 (상대 55) 1,000 정창동 (간호 45) 100 한재은 (의대 59) 500 수재민 돌기 후원금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김문소 (NE) 100 김연화 (음대 68) 200 신응남 (NY) 200 손재욱 (PA) 1,000 황선희 (PA) 200 합계: 2,400 장학금 김동훈 (법대 56) 100 김은성 (의대 53) 100 심상은 (상대 54) 100 유재환 (상대 67) 100 KISS (수의 60) 2,1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원섭 (농대 77) 100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상욱 (사대 52) 500 최수강 (의대) 100 지부 분담금 뉴욕 3,000 북텍사스 550 알라스카 200 워싱턴주 600 조지아 600 커네티컷 200 캐롤라이나 200 테네시 200 하트랜드 300 후원금 남가주 김 영 (수의 63) 500 김영순 (음대 59) 400 김원탁 (공대 65) 200 김인중 (농대 74) 25 김일영 (의대 65) 200 김재영 (농대 62) 240 김종표 (법대 58) 500 김창신 (사회 75) 100 문석면 (의대 52) 2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100 박중수 (수의 58) 1,100 방석훈 (농대 55) 200 백옥자 (음대 71) 400 위중민 (공대 64) 200 유재환 (상대 67) 2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2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영송 (치대 63) 400 이영일 (문리 53) 2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정철 (공대 55) 4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11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북가주 강정수 (문리 62) 125	이성형 (공대 57) 150 김윤범 (의대 54) 200 한상봉 (수의 67) 240 뉴욕 강에드 (사대 60) 2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두선 (공대 68) 100 박상원 (문리 54) 40 배명애 (간호 47) 225 배정희 (사대 54)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운순 (의대 52) 325 이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200 이준행 (공대 48) 2,0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허선행 (의대 58) 200 허유선 (가정 83) 1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1,0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김선혁 (약대 59) 100 김은환 (의대 60) 850 김제호 (공대 56) 100 송미자 (농대 62) 65 윤상래 (수의 60) 40,1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욱 (의대 60) 1,100 정대영 (문리 71) 100 정혜숙 (간호 66) 65 정 태 (의대 69) 200 최홍균 (공대 69) 1,0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북텍사스 최중권 (문리 59) 200 샌디에고 김군빈 (법대 56) 75 박우선 (공대 57) 200 시카고 김연화 (음대 68) 150 이용락 (공대 48) 500 조형원 (약대 50) 500 최희수 (문리 67) 75 아리조나 박양세 (약대 48) 200 진명규 (공대 70) 1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200 송재용 (의대 69) 200 오하리오 성희원 (수의 75) 200 워싱턴 DC 강길중 (약대 69) 200 권철수 (의대 68) 200 박용걸 (약대 56) 200 박평일 (농대 69) 300 서윤석 (의대 62)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문향 (공대 46) 100 이인옥 () 25 장효열 () 100 한의생 (수의 60) 2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2,000 허지영 (문리 66) 2,000	필라델피아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서중민 (공대 64) 150 손재욱 (가정 77) 500 송영두 (의대 56) 500 신성식 (공대 56) 200 제갈은 (문리 59) 150 조정현 (수의 58) 300 조화연 (음대 64) 150 지흥민 (수의 61) 200 플로리다 전영자 (미대 58) 50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200 유시영 (문리 68) 500 캐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400 하와이 김상태 (의대 57) 400 하트랜드 오명순 (가정 69) 500 이상강 (의대 70) 10,000 최은관 (상대 64) 300 휴스턴 김옥균 (공대 54) 200 진기주 (상대 60) 500 최영기 (공대 63)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 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	--	---	---	--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69명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김정희 (음대 56)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중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뉴욕 김광호 (문리 62) 김중권 (의대 63) 오인석 (법대 58)*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리오 김용현 (경영 66)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북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지흥민 (수의 61) 플로리다 김중원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중신이사 (교인)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	---	--	--	--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S.CA/NV	나두섭 (의대 66) 나민주 (음대 65)*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동수 (공대 73) 문병길 (문리 61) 문인일 (공대 51) 민병돈 (문리 58) 민수봉 (상대 55) 민일기 (약대 69) 박대균 (수의 57) 박병근 (상대 63)* 박민정 (음대 80) 박범순 (가정 70) 박병원 (의대 49) 박부강 (사대 64) 박석우 (상대 58) 박순자 (간호 60) 박원준 (공대 53) 김건진 (문리 62)* 김경옥 (미대 61) 김광은 (음대 56) 김구자 (미대 61) 김규현 (법대 53) 김난영 (공대 53) 김동산 (법대 59)* 김동훈 (법대 56)* 김병연 (공대 68) 김병환 (공대 58) 김상은 (약대 59) 김석홍 (상대 58) 김선기 (법대 59) 김성복 (공대 50) 김성환 (의대 65) 김수영 (사대 57) 김순길 (법대 54) 김순길 (의대 57)* 김 순 (수의 63)* 김영덕 (법대 58) 김영순 (음대 59) 김영춘 (수의 64) 김옥경 (가정 60)* 김원경 (약대 59) 김재원 (의대 63) 김용재 (의대 60) 김원택 (공대 65) 김인종 (농대 74) 김일영 (의대 65) 김정애 (간호 69) 김정희 (음대 56) 김재영 (의대 62)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진형 (문리 55) 김창우 (음대 53) 김창신 (사회 75) 김태윤 (법대 53) 김택수 (의대 57) 김현환 (공대 64) 김홍목 (문리 60)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양운택 (의대 58) 양은혁 (상대 56) 양창호 (상대 54) 오선홍 (의대 63)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상대 61)* 유석홍 (음대 66) 유재환 (상대 67)* 유희자 (음대 68)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건일 (의대 62) 이경수 (수의 73) 정태우 (사대 44) 이기재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명선 (상대 58) 이문상 (공대 62) 이방기 (농대 59) 이범모 (치대 74) 이범석 (의대 58)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5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성자 (간호 76) 이소희 (의대 61)* 이승호 (의대 47) 이영송 (치대 63) 이영수 (상대 60) 이영일 (문리 53)* 이용한 (공대 64)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윤진 (간호 80)* 이정길 (치대 60) 이정근 (사대 60) 이정리 (사대 60) 이정화 (공대 52) 이정희 (음대 55) 이재권 (법대 56) 이재원 (농대 58) 이재룡 (공대 71) 이종모 (간호 69) 이준호 (상대 65) 이중희 (공대 53) 이재진 (문리 55) 이현찬 (치대 75)* 이혜영 (음대 62) 이호진 (간호 74) 이홍표 (의대 58) 이휘영 (법대 59) 이희충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진환 (치대 68)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기창 (공대 56)	장소현 (미대 65) 장인숙 (간호 70) 장철봉 (수의 65)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상욱 (사대 52)* 전성태 (사대 60) 전연근 (수의 52) 전희택 (의대 58) 전길택 (수의 54) 정동규 (공대 57)* 정상진 (상대 59) 정연용 (상대 63) 정예진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정정우 (수의 74) 정재훈 (공대 64)* 정태우 (사대 44)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 황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 경 () 조동준 (의대 59) 조만일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정식 (공대 60) 조태준 (문리 59) 조임현 (간호 72) 조재길 (사대 61)* 주정래 (상대 65) 지인수 (상대 69)* 차민영 (의대 76)* 최경홍 (공대 60) 최동욱 (의대 59) 최 영 () 최영진 (사대 61) 최은관 (상대 64) 최재윤 (인문 54) 하기환 (공대 66)* 하선호 (치대 81) 한동수 (의대 60)* 한병용 (문리 71)* 한은식 (농대 61) 한중철 (치대 62)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허영진 (문리 61) 현기용 (문리 64) 홍동식 (법대 64) 홍석관 (사대 47) 홍선례 (음대 71)* 홍성선 (약대 73) 홍수용 (의대 59)* 황선주 (간호 69)* 홍 진 (간호 56)* 북가주 SAN FRANCISCO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병환 (문리 67) 김병덕 (법대 58) 김병호 (상대 57) 김영석 (상대 62)* 김윤복 (의대 54) 김옥경 (음대 69) 김환기 (사대 55) 김정복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성현 (의대 56) 김성호 (공대 71) 김세중 (공대 50) 김수산 (의대 52) 김수일 (약대 62) 김영우 (공대 75)* 김영일 (의대 58)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예흠 (의대 55) 김완주 (의대 54) 김용술 (상대 56) 김용연 (상대 63) 김우영 (상대 60) 김옥현 (의대 59)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은석 (의대 53) 김인형 (미대 59) 김정빈 (약대 54) 김재경 (농대 58) 김종률 (사대 51) 김중현 (법대 57) 김진자 (간호 60) 김창수 (약대 64) 김태일 (공대 68)*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김현중 (공대 63)* 김호일 (공대 60) 김희국 (약대 54) 김희자 (미대 66)* 라준국 (공대 48) 맹광호 (문리 71) 문석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민병갑 (문리 63) 박건이 (공대 60)* 박두선 (공대 68) 박수만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박승화 (간호 69) 박영태 (상대 63) 박진우 (상대 77) 반영철 (약대 54) 방준재 (의대 63) 배병애 (간호 47)*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변건용 (공대 65)	변해순 (간호 68) 변호련 (간호 63) 서병선 (음대 65) 서정용 (약대 63) 석진경 (약대 96) 선종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손경택 (농대 57) 송근숙 (간호 66) 송용순 (사대 60) 송용섭 (농대 63) 송용길 (대원 69)* 신달수 (공대 59) 신두식 (의대 58) 신응남 (농대 70) 신정윤 (공대 70)* 신정자 (간호 62) 안태홍 (상대 65)* 양거명 (약대 49) 양명자 (사대 63) 오민근 (약대 52)* 용하식 (법대 58) 우대식 (문리 57)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유택상 (문리 58) 육순재 (의대 63)* 윤봉국 (사대 54) 윤신원 (의대 50) 윤영섭 (의대 57) 윤인숙 (간호 63) 윤 철 (문리 54) 윤희정 (문리 59)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대연 (약대 65) 이대영 (문리 64) 이명준 (공대 72) 이상우 (의대 56)* 이성근 (의대 60) 이승일 (경영 66) 이영숙 (간호 56) 이영희 (미대 68) 이운순 (의대 52) 이전구 (농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재원 (법대 60)* 이종석 (상대 57)* 이준행 (공대 48)* 이중훈 (공대 56) 이중환 (법대 51) 이태상 (문리 55) 이태안 (의대 61) 임공세 (의대 61) 장화자 (간호 60) 전성진 (사대 54) 전재우 (공대 61) 정동성 (상대 58)* 정인식 (상대 58)*	정창동 (간호 45)* 정해민 (법대 55) 주공로 (공대 68) 조경숙 (가정 71)* 조남천 (사대 59)* 조대영 (공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중수 (공대 64) 조종원 () 62)* 조태환 () 61)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 (약대 71) 최구진 (약대 54)* 최수강 (의대 71) 최영태 (문리 67) 최진영 (문리 55) 최한용 (의대 58) 최희무 (법대 69) 한병용 (문리 71)* 한영수 (의대 61) 한중용 (공대 54) 한태진 (의대 58) 함종국 (간호 66) 허경열 (의대 73) 허병렬 (사대 42) 허선행 (의대 58) 허유선 (가정 83)* 홍선경 (의대 58) 홍정표 (음대 67) 뉴잉글랜드 MA/RI/NH/ME/VT	주창준 (의대 50) 조성호 (공대 85) 최선희 (문리 69) 최홍균 (공대 69) 한승원 (미대 60) 홍지복 (간호 70) 황보민영 (공대 03) 북텍사스 LA/DALLAS 김옥균 (공대 54) 김종원 (의대 60) 박영규 (사대 66) 박준섭 (약대 63) 유 황 (농대 56) 조진태 (문리 57) 최준권 (문리 59) 탁혜숙 (음대 67) 황영규 (공대 61)*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윤우용 (공대 63) 룩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 (의대 64) 이경화 (공대 56) 미네소타 MINNESOTA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성욱진 (치대 87) 송창원 (문리 53) 왕규현 (의대 58) 주한수 (수의 62) 황효숙 (사대 65) 샌디에고 SAN DIEGO 강영호 (의대 57) 김군빈 (법대 56) 김장우 (사대 56)* 민영기 (치대 61) 박경호 (사대 53)* 박우선 (공대 57)* 윤진수 (의대 57) 이문상 (공대 62) 이영선 (간호 77) 이훈수 (의대 77)* 전원일 (의대 77)* 정경화 (의대 70)* 조두연 (수의 62) 진성호 (공대 64)* 정태영 (문리 71)
----------------	---	--	--	---	---	---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시카고 IL/IN/WI/MI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용락 (공대 48) 이용수 (약대 51) 이윤모 (농대 57) 이정일 (농대 57) 이정화 (음대 56) 하인환 (공대 56) 이종일 (의대 65)* 임병훈 (의대 59) 임이섭 (미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장 홍 (문리 61) 정승기 (공대 60)* ShinJD (인문 58) 박희진 (농대 78) 전병택 (상대 65) 정성국 (인문 73)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사대 60)* 공순옥 (간호 66)* 최대환 (의대 53) 최혜숙 (의대 53) 최희수 (문리 67) 한익열 (공대 62) 한재은 (의대 59) 함성택 (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하계현 (공대 64) 아리조나 ARIZONA 김영중 (치대 66)* 박양세 (약대 48) 지영환 (의대 59) 진명규 (공대 70)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김용현 (경원 66) 김태웅 (의대 61) 명인재 (자연 75) 성홍남 (수의 75)* 송재용 (의대 69) 여준구 (의대 64) 이영진 (공대 61) 이성길 (의대 65)	창극기 (의대 64) 최영순 (간호 69) 최인갑 (공대 57) 앨라스카 ALASKA 윤제중 (농대 54)* 하인환 (공대 56) 오레곤 OR/ID 김상만 (음대 46) 김상순 (상대 67) 성성모 (사대 67) 송재용 (의대 69) ShinJD (인문 58) 박희진 (농대 78) 전병택 (상대 65) 정성국 (인문 73)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사대 60)* 워싱턴 DC DC/MD/VA/WV 강길총 (약대 69) 강연식 (사대 58) 계화자 (문리 61) 고무환 (법대 57) 공순옥 (간호 66)* 곽명수 (문리 65) 권오근 (상대 58) 권철수 (의대 68) 김내도 (공대 62)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병호 (의대 63) 김복순 (사대 55) 김안정 (문리 59) 김용덕 (의대 53) 김용환 (상대 50) 김진수 (의대 60) 김진은 (사대 55) 김 철 (의대 62) 남옥현 (경원 84)* 남춘일 (사대 69) 도상철 (의대 63) 박 업 (사회 80) 박용걸 (약대 56)* 박인영 (의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은희 (미대 68)	박 철 (공대 57) 박홍우 (인문 61) 방정화 (의대 61) 백 순 (법대 58) 서기병 (상대 55)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병준 (약대 68) 송윤정 (인문 83) 신영철 (의대 59) 신용계 (의대 62) 심준보 (상대 55) 안선미 (농대 65) 안세현 (의대 62) 안승진 (문리 55) 양광수 (공대 73)* 박진수 (의대 56) 박찬형 (의대 56) 박찬형 (2016) 변종혜 (법대 58) 류성렬 (공대 72)* 안승철 (농대 59)* 양용관 (수의 62) 윤태근 (상대 69)* 원종민 (의대 59)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이건형 (수의 54) 이경애 (문리) 이규양 (문리 62)* 이길송 () 57) 이내원 (사대 58) 이문항 (공대 46)* 이선구 (인문 65) 이연주 (치대 88) 이영수 (공대 59) 이유세 (사대 72) 이윤주 (상대 72)* 이인옥 () 68) 이재승 (의대 55) 이준영 (치대 74)* 이종두 (의대 57) 이진호 (공대 46)* 임종식 (의대 51) 임창주 (공대 55) 임필순 (문리 48) 김중수 (수의 73)* 김태형 (의대 57) 김학래 (공대 60)* 손중수 (의대 50)* 오경호 (수의 60) 유성부 (상대 66) 정희연 (의대 61)* 최화유 (문리 61) 차임경 (가정 77)	최경수 (문리 54) 최규식 (상대 64)* 최길찬 (사대 88) 최재규 (미대 63) 한익생 (수의 60) 한인섭 (문리 55) 한정민 (농대 87) 함은선 (음대 77) 홍영석 (공대 58) 중부텍사스 MID-TEXAS 워싱턴주 WASHINGTON 김석희 (의대 52) 김재훈 (공대 72)* 김주용 (의대 56) 박진수 (의대 56) 박찬형 (의대 56) 박찬형 (2016) 변종혜 (법대 58) 류성렬 (공대 72)* 안승철 (농대 59)* 양용관 (수의 62) 윤태근 (상대 69)* 원종민 (의대 59) 최현태 (문리 62) 한기빈 (공대 52) 한수용 (의대 55)*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약대 63) 황선희 (공대 74) 플로리다 FLORIDA 김민기 (문리 58) 김용재 (의대 60) 김정호 (의대 54) 김태형 (의대 57) 김학래 (공대 60)* 손중수 (의대 50)* 오경호 (수의 60) 유성부 (상대 66) 정희연 (의대 61)* 최화유 (문리 61) 차임경 (가정 77)	이종석 (의대 54) 임수암 (공대 62) 정선휘 (공대 65)* 주중광 (약대 60) 최재학 (사대 56) 최종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허지영 (문리 66) 중부텍사스 MID-TEXAS 김장환 (공대 81) 박태우 (공대 64) 이영재 (상대 58) 진기주 (상대 60) 최홍은 (의대 53)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최현태 (문리 71) 김규화 (상대 63) 김순주 (치대 95) 김영남 (의대 61) 김영우 (공대 55) 김정현 (공대 68) 김재술 (약대 58) 김철우 (공대 79)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김희국 (약대 54) 노은숙 (약대 53)* 이 관 (공대 55)*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용진 (문리 48) 김중수 (수의 73)* 김태형 (의대 57) 김학래 (공대 60)* 손중수 (의대 50)* 오경호 (수의 60) 유성부 (상대 66) 정희연 (의대 61)* 최화유 (문리 61) 차임경 (가정 77)	유영걸 (의대 70) 윤정남 (음대 57) 이규호 (공대 56) 이수경 (자연 81) 이승공 (의대 63)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용남 (문리 60) 정정수 (의대 56)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주기목 (수의 68) 조화영 (문리 64) 지재원 (사대 68) 지흥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최현태 (문리 62) 한기빈 (공대 52) 한수용 (의대 55)*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약대 63) 황선희 (공대 74) 플로리다 FLORIDA 김동한 (문리 53) 김재석 (의대 66) 김중원 (의대 63) 박창익 (농대 64) 송용덕 (의대 57) 안창현 (의대 55) 이정필 (의대 58) 이재택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9) 조동건 (공대 69) 최준희 (의대 58) 한기빈 (공대 52) 한성수 (의대 54)* 홍순호 (수의 74)* 황현상 (의대 55)*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라찬국 (의대 75) 유시영 (문리 68) 주공로 (공대 68)* 최수강 (의대)* 한일송 (의대 60) 홍성휘 (공대 56) 캐롤라이나 SC/NC/KY 김기현 (문리 52) 마동일 (의대 57) 성예경 (치대 54) 윤 속 (문리 66)* 이달호 (사대 45) 이범세 (의대 56) 이석형 (사대 56) 이항열 (법대 57) 한광수 (의대 57)* 홍 훈 (문리 75)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김용진 (공대 50) 박재현 (자연 81) 서갑식 (공대 70) 우양구 (법대 70) 하와이 HAWAII 구해근 (문리 60) 김달욱 (사대 55) 김상태 (의대 57)* 김용진 (공대 50) 손민욱 (문리 52) 손호민 (문리 52) 유재호 (문리 57) 장광수 (사대 50) 차용만 (의대 58)* 최경윤 (사대 51) 하트랜드 IA/MO/KS/NE/ AR/OK 구명순 (간호 66) 김명자 (문리 62) 김승희 (법대 55) 김호원 (치대 52)	도태영 (사회 93) 백산옥 (문리 51) 성낙준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이상강 (의대 70)*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차봉희 (의대 51) 휴스턴 HOUSTON 김기준 (공대 61)* 김태훈 (공대 57) 김한섭 (의대 53) 박민자 (사대 58) 박석규 (간호 59) 박유미 (약대 62)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규진 (약대 60) 이길영 (문리 59) 이찬주 (문리 63) 이학호 (수의 59) 탁순덕 (사대 57)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최영기 (공대 63) 최용천 (의대 53) (* 2017~2019) 김현주 (문리 61)* 서갑식 (공대 70) 오선웅 (의대 63) 신승하 ()
--------------------	--	---	---	---	---	---	---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P.O. Box 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Rd.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o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978-835-0100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8개국 선교지 11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편집 위원: 이정수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철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소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서울 메디칼 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환자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 진료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Dr. 차민영 (의대 76)

5



- ★ 최우수 등급 5스타 메디칼 그룹
- ★ 아주 빠른 전문의 허가 (리퍼)
- ★ 미주 최대 규모 한인 의료기관
- ★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서비스
- ★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평점 별 5개 최고 점수
 전체 가입자 4만명 돌파!

★★★★★ 최고 점수! 최고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더 건강해 지세요.**

항상 '사람이 먼저' 라는 생각으로 환자 분들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는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며 계속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해 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13.389.0077 • 213.800.3852 • 1.800.611.9862 |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LA 카운티 • 오렌지 카운티 • 다이아몬드바 • 벨리 • 사우스베이 • 산호세 • 시애틀 • 하와이